

Sulwhasoo

Vol.65 November/December 2014



이승희 작가의 작품에는 길고 긴 인고의 노력이 스며들어 있다. 붉은 흙물을 비르고 마르고 또 바르기를 70여 회 반복하며 티끌의 높이보다 낮은 두께로 굽어내고 성형(成形)해 만들었다. 유약 없이 구워진 흙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는 배경 부분과 전통의 도자기 그대로를 재현해놓은 부분이 빛을 받으면 도자 본연의 밝은 윤기가 생생하게 살아난다. 이승희 작가의 'TAO' 작품들과 우일요의 새 오브제 도자기 향이리.

평면도자
조화로이 어울리는 입체와



雪

花秀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리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됩니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 인삼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니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차오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해진 안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Sulwhasoo



전통 기법과
현대 의식의 만남



시공을 초월해
도자의 윤이 흐른다



윤이 흐르다

Effortful and sufficient moisturizing of winter skin that has become rough due to the fierce and cold winter wind brightens it and makes it clean and shiny. Myeongyun, or glossiness, can be seen in the art works around us. The glossiness of traditional white porcelain is radiantly revealed in contemporary works, which produce something new from tradition. The gloss that is found on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05, Moon Jar, by Sagijang (pottery making) Master Jeongok Kim, and in Artist Seunghee Lee's flat pottery series, delivers a "shine" that has a different depth as it was created with perseverance.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 찬바람으로 인해 흐트러진 피부에 공을 들이고 충만해진 보습은 얼굴 위로 밝고 맑게 빛나는 윤기로 이어진다. 명윤(明潤), 즉 환하게 나는 윤기는 우리 주변의 예술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전통 백자 위로 기운차게 흐르는 윤기는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킨 현대 작품에서도 환하게 드러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 사기장 김정옥 작가의 달항아리와 입체 도자기 작품을 평면화시킨 이승희 작가의 평면 도자기 작품에서의 윤기는 인고의 노력이 빛어졌기에 깊이감이 다른 '빛남'을 전하고 있다. S

표지 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 사기장 김정옥 작가의 달항아리, 이승희 작가의 'TAO' 백자 달항아리. **뒤표지**는 이승희 작가의 'TAO'와 우일요의 청화 모란 문양의 찻주전자. **양쪽 페이지**는 이승희 작가의 'TAO'와 민속 골동의 조선시대 항아리.

에디터 권자매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정지혜, 황남주 **도움** 주신 곳 백산가(02-733-3935), L153 아트 컴패니(02-322-5827), 우일요(02-763-2562)





30 70



58



Sulwhasoo

November/December 2014

자연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빼어난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의 시작은 바로 한방 화장품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한방 화장품의 대명사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여성의 피부에 대한 애정과

한방 성분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땅에서 움트고 자란 순수한 국산 한방 성분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설화수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의 좋은 한방 성분을 찾기 위한 노력과 애환이 제품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설화수의 이러한 역사와 철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고집과 신념을 지닌 채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설화수의 정신은 옛 여인들이 지닌 아름다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은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취한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감입니다.



86



48

한국 문화 읽기	남바위와 ayam Nambawi and Ayam	06
집 안 단장	공간에 깊이감을 더하다	10
몸 단장	이토록 아름다운 마음의 선물	12
피부 섬기기	주름은 밀어내고 탄력은 차올리는 설화수 자여진 에센스	14
설화문화전	3인의 건축가, 다양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다	18
격조 높은 삶	너그러운 색으로 폼다	24
백의 민족으로의 삶을 보다	백의민족, 광명을 입다	26
아우러지다	생활에 기쁨을 더하며 조화로이 어울리니	30
살펴보다	음양오행이 조화를 이룬 색(色)의 지혜	38
세밀하게 보다	黑, 깊어가는 겨울의 골	40
설화수의 사계	곱디고운 결과 빛의 기쁨을 지나다	48
월드 헤리티지	존경으로 짜내는 직물, 트와이 드 마옌(Toiles De Mayenne)	52
아트 클래스	이불의 작품세계,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58
잇다	나무, 신령의 옷 벗고 생명을 얻다	64
설화보감	피부를 보하여 기운이 차오르니	70
설화수를 말하다	설화수로 꽃피운 조화의 아름다움	76
설화도감	자연에서 찾은 인간의 이상향, 사군자	80
미색보감	윤기를 되돌려 피부를 보하라	84
설화과학	한 살 더 어린 피부로 보필하라	86
마음 단장		88
문화 즐기기		92
설화수 뉴스		93
Insides Sulwhasoo		94
독자 선물		96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매거진입니다.

As a global brand, Sulwhasoo aims to spread the in-depth beauty of Korea and the harmony of its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arts. The works of the artists who inherited and reinterpreted the beauty that the masters had created can be seen on the cover of Sulwhasoo Magazine. The cover of the magazine's Nov/Dec. issue is dominated by Kore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05, Moon Jar, by the Master of Pottery Jeongok Kim, and by the flattened pottery series of Artist Seunghee Lee, who produced his unique art works by flattening three-dimensional pottery. Both works display a clearly shining radiance that sprang forth from the artists' enduring efforts.

글로벌 브랜드로서 설화수는 깊은 한국의 미를 알리고자 전통과 현대 아트와의 조화로운 추구를 한다. 장인들이 빚어낸 아름다움을 이어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티스트들과의 동행은 설화수 매거진의 표지에서 만날 수 있다. 11/12월호 표지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 김정옥 작가의 달항아리와 입체적인 도자기를 평면화 시키며 작가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현한 이승희 작가와의 만남으로 이루어 졌다. 두 작품 모두에서는 작가의 인고의 노력이 빚어낸 맑게 빛나는 윤기가 흐르고 있다.



●발행인·서경배 ●편집인·류제천 ●발행처 (주)아모레퍼시픽·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번지 시그니처 빌딩 ●제작·Luxury MC 팀 ●문의·문선영 02)879-3541 ●편집, 디자인·GURU visual·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33-140 코오롱디지털타워 2차 305호 02)2117-0250 편집·권지애, 김희성 디자인·조윤희 ●발행일·2014년 11월 1일(통권 제65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Scan Et Photoengraving Ing Process ●인쇄·(주)태신인덱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명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남바위와 아얌 Nambawi and Ayam

예와 멋을 두루 갖춘 난모(暖帽).



조선은 '모자의 나라'라 불려도 좋을 정도로 가지각색의 모자가 존재했다. 모자를 통해 계급을 구분했던 것은 물론 인생에 중요한 시점이 되는 관혼상제의 상징을 담은 모자, 나이에 따라 쓰는 모자, 계절에 따른 모자 등이 있어 멀리서 모자만 보고도 그 사람의 신분과 처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모자를 쓰는 것이 의관을 갖추는 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1892년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인 시를르 비르는 <뚜르 드 몽드>지에 '한국은 모자의 왕국이다. 세계 어디서도 이렇게 다양한 모자를 지니고 있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외국인의 눈에 '모자의 나라'를 넘어 '모자의 왕국'으로 보였던 나라, 조선의 계절용 모자 가운데 난모(暖帽)로 칭되는 겨울용 방한모가 유독 다채롭게 발달된 것으로 보아,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는 매서운 겨울을 견뎌야 했던 모양이다. 다만, 난모는 추위를 면하기 위한 용도만이 아니었다.

정조 3년 1월에 '전경문신(專經文臣)의 전강(殿講)에서 수석한 사람에게 난모를 하사한 기록(<정조실록(正祖實錄)>)'이나 '난모는 문관, 음관, 무관이 10월 초하루에서 이듬해 1월 그믐날까지 관복을 입을 때에 사모 안에 착용한다. 재료는 당상관일 경우 초피(貂皮)이고 당하관은 서피(鼠皮)로서 모피의 재료에 차이를 둔다(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의 기록을 통해 난모가 방한과 의례를 겸하던 쓰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혹독한 추위를 막되, 예와 격식도 겸해야 하는 중한 물건이 난모였으니, 우리 선조들이 그 제작에 얼마나 공을 들였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솜을 두어 누비거나 털가죽을 둘러 실용을 높이고, 화복을 비는 보석이나 매듭, 길상무늬 등으로 장식하여 멋스럽게 지었다. 난모는 조선 말기에 서양 모자들이 유입되며 서서히 사라졌지만, 남바위와 아얌처럼 그 쓰임이 실용적이고 멋스러워 지금까지도 꾸준히 제작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중 남바위는 남녀가 두루 쓰던 외출용 방한모의 대표격이다. 천에 솜을 누벼 머리에서부터 귀와 목덜미까지 덮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남바위는 모자 끝부분에 털가죽을 둘러 만드는 것이 기본이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re were so many kinds of hats that it could be called the 'country of hats.' Hats not only identified social classes, but were also used to denote individuals' position and situation, as there were hats for the rites of passage, hats for different ages, and hats for different seasons. Hats were also part of costumes.

A French person who visited Korea in 1892, wrote in the 'Tour de Monde' that "Korea is the empire of hats; I have never see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with so many different kinds of hats." Moreover, winter in the Korean Peninsula must have been severe in the old times, because it had more kinds of hats for staying warm in winter, collectively known as Nanmo. However, Nanmo was not just for staying warm.

Nanmo was worn to keep warm and for rituals, as stated in this historical record in January of the third year of the reign of King Jeongjo: "Nanmo was bestowed to a person who aced the government examination (Jeongjosillok)", or in this record: "Nanmo is worn by government officials and military officials underneath the official hat with the official costumes, from October 1 to January 31 of the following year, and is made of marten skin for higher-class officials and rat skin for lower-class officials [Ojueonmunjangjeonsango (五洲衍文長箋散稿)]." Nanmo was an important accessory for keeping warm, for extending courtesy, and for formality, so our Korean ancestors surely put much effort into making it. It was quilted with cotton inside, finished with fur for practicality, and ornamented with gemstones, knots, or patterns for good fortune. Nanmo gradually disappeared wit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ha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but Nambawi and Ayam are still made today because they are so useful and beautiful.



다. 3단계로 곡선을 둔 가름한 디자인으로 우리나라 전통 복식 특유의 곡선미를 살린 형태와 피부에 닿는 촉감을 배려해 모자 안쪽에 포근한 융을 댄 섬세함이 감탄스럽다. 남성용은 주로 검은색에 매듭과 수술 장식만으로 정갈한 멋을 내었고, 부인용에는 수(繡)와 구슬 등의 장식을 더해 여성미를 더했다. 실용성을 더욱 높이고자, 볼을 덮을 수 있는 볼끼를 만들어 필요에 따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는데, 모자와 다른 디자인의 자투리 천과 털을 이용해 만든 재치가 멋스럽기까지 하다. 남바위와 매우 흡사한 형태와 쓰임을 가진 풍차(風遮)는 볼끼를 고정해서 만든 것이다.

남바위가 남녀 공용이라면, 아얌은 젊은 부녀자의 외출용 난모로 여성미가 한껏 강조됐다. 유교 사상에 따라 남녀가 유별하던 조선에서 외출 시 여인이 얼굴을 다 드러낼 수는 없는 일. 그렇다고, 아리따운 미색을 모두 감추는 것 또한 아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아얌은 그 밸런스를 절묘하게 살린 모자다. 띠 모양의 모자가 이마를 가려 예를 차리되 얼굴과 턱선을 드러내고, 뒤에는 기다란 비단에 밀화나 금판 등으로 만든 매미를 군데군데 단 아얌드림을 늘어뜨렸다. 매미 장식은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아얌드림 천에 무게감을 더해 바람이 불어도 흐트러지지 않고 차분하게 늘어뜨릴 수 있도록 했다. 여인이 아얌을 쓰고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아얌드림이 여인의 몸이 움직이는대로 마치 춤을 추듯 흔들릴 테니, 그 자태가 무척이나 고풍적이었을 것이다. 부러 귀염을 부리는 말과 행동을 ‘아얌 떠다’고 하는데, ‘아얌’이 ‘아얌’에서 온 말임을 안다면, 그 자태가 눈에 선하고도 남음이다.

남바위와 아얌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모자의 윗부분을 터서 정수리를 드러내도록 했다는 점. 여기에는 건강을 위해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려 했던 두한족열(頭寒足熱)의 지혜가 담겼다. 난모로 인한 열기가 지나치게 머리에 머물지 않도록 정수리에 바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을 둔 것이다. 선조의 방한모는 이렇게 예와 멋을 갖추되, 과학적인 지혜까지 잊지 않았다. 5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은숙 도움 받은 곳 한복린(02-517-6380)

Nambawi was the most popular type of winter hat for both men and women. It was designed to cover the head and ears, down to the neck, with fabric quilted with cotton inside. It was usually finished with fur around the rim. The details of the narrow design that was curved in three steps to create the unique curve of traditional Korean costumes, and the warm cotton flannel lining inside for a soft feel, are amazing.

Nambawi was for both men and women, but Ayam was for young women and was very feminine. The Joseon society was a Confucian society wherein women could not expose their entire face when they went out. However, women then did not want to hide their beautiful faces, either. Ayam found a balance in the middle. The band-shaped hat hid the forehead for courtesy, while revealing the face and the chin line. In the back, Ayamdrim, a long piece of silk ornamented with Maemi that was made of drawings or gold pieces, was attached and allowed to drape down. The Maemi was not just beautiful--it also added weight to the Ayamdrim so that it would stay wherein women put and unruffled even on a windy day. Imagine a woman then walking with Ayam on her head. The Ayamdrim must have danced with her body, so it must have been very seductive. When someone talks and acts in a cute manner, Koreans often say he/she acts with ‘Ayang.’ ‘Ayang’ is a derivative of ‘Ayam,’ and denotes its beauty.

One of the things Nambawi and Ayam had in common was that the top of the hats was open to reveal the crown of the head. This reflects the wisdom of ‘keeping the head cool and the feet warm’ for health. It was a hole for ventilation, so that the heat would not accumulate on top of the head. Though the warming hats of our Korean ancestors were for courtesy and beauty, they also reflected scientific wisdom.



1

공간에 깊이감을 더하다

그림이나 사진이 담겨 있는 액자 한 점이 텅 빈 마음에 따뜻함을 주듯,
여백이 머무는 공간에 색다른 감성과 품격을 채워준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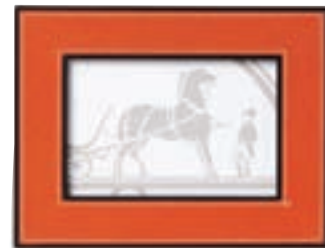
4



5



3



6

1 매화 문양이 아름다리 드리워진 액자는 공평아트센터. 2 기하학 패턴의 우드 프레임 액자는 더 패브. 3 말 인장 펜던트가 부착돼 있는 액자는 더 패브. 4 기다란 스탠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 액자는 더 패브. 5 자라멜라 실버 프레임의 오발 액자는 피순 by 신세계. 6 슬리드한 오렌지 컬러와 클래식한 멋이 깃든 가죽 액자는 에르메스.

사랑하는 이의 모습이나 좋은 그림 한 점을 곁에 두고 언제나 보고 싶다면 허전한 벽면과 공간을 채워주며 감성의 기운을 올려줄 액자 선택이 제일 먼저다. 멋지고 고급스러운 액자를 무조건 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기에 액자를 고르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다. 액자를 걸어놓을 공간의 성격과 액자 안에 넣을 그림이나 사진의 선택, 벽의 컬러, 그리고 걸어놓을 높이까지 감안했을 때 액자와 공간은 하나가 되어,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케 해 준다.

액자를 몇 개 거느냐에 대해서는 특별한 룰이 존재치 않는다. 한 개를 걸어놓는다면 사이즈가 큰 것이 좋으며 여러 개의 액자를 걸기를 원한다면 사이즈가 다르게 해야지만 벽면에 동적인 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액자 안에 좋은 그림 한 점을 넣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의 사진을 넣으면 볼 때마다 행복의 엔도르핀이 마구 솟아난다. 소중한 추억, 언제나까지 기억하고 싶은 풍경을 액자에 넣어 벽 위에 걸거나 책상, 장식장 위에 놓음으로써 공간은 품위 있게 그리고 온정 깊게 완성된다. S

에디터 권자에 사진 문성진 스타일리스트 문지윤 어시스턴트 정지혜, 황남주 도움 주신 곳 공평아트센터(02-3210-0071), 더 패브(02-571-8060), 파손 by 신세계(02-727-1464), 아띠고 디자인(02-3443-8170), 에르메스(02-544-7722),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02-398-7900)



7



8



9



10



11



12

7 벽에 걸려 있는 하프케 앤티크 스타일의 오벌 액자는 파손 by 신세계. 8 양쪽 프레임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하프케 에나멜 트리플 사각 액자는 파손 by 신세계. 9 시크한 컬러로 리드앤바튼의 패턴 프레임 액자는 파손 by 신세계. 10 심플한 감각이 흐르는 자리멜라 실버 프레임의 더블 액자는 파손 by 신세계. 11, 12 심플한 라운드와 기하학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프레임은 트레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김하운 작가 작품으로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1

이토록 아름다운 마음의 선물

선물, 그 이름만으로도 전달되는 의미는 모두 긍정적인 행복으로 통한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주는 이와 받는 이의 설렘으로 가득한 선물 리스트.



2



4



5



3



6

1 손으로 직접 만든 솜씨와 정성이 돋보이는 배창숙 작가의 칠보 브로치는 공평아트센터. **2** 심플한 문양들이 프린트되어 있으며 고급스러운 컬러감이 돋보이는 이수민 작가의 스카프는 KODF. **3** 부드러운 질감의 뱀피 가죽으로 볼드하게 제작된 안경 케이스는 아르마니까사. **4** 진주와 아케이드 소재의 아트 오브제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이용무 작가의 비녀는 공평아트센터. **5** 밥과 반찬은 물론 작은 떡이나 케이크도 담을 수 있는 허명욱 작가의 옷칠 도사릭은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6** 컬러풀한 주얼리 참들과 블랙과 골드의 에스닉한 디자인이 멋스러운 목걸이는 에트로.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길목에서 1년 동안 고마웠던 이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에는 물건 이상의 진중한 의미를 담기 마련이다. 선물은 가격이 높은지 아닌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떠나 받는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센스를 갖춰야 한다.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기에 작고 소박한 선물이 때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큰 감동을 전해 주기 때문이다.

좀 더 특별한 선물을 고르고 싶다면 브랜드에서 특별히 선보이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세상에 단 몇 점밖에 없는 작가의 작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또한 꼭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올곧이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자신만을 위해 근사한 선물을 베푸는 것은 어떨까? 선물상자를 받았을 때의 기쁨 섞인 놀라움과 상자를 열었을 때의 마음이 녹아내릴 듯한 따뜻함, 거기에 손글씨로 직접 적은 감사의 카드 한 장 곁들이는 센스, 잊지 말자. S

에디터 권지애 사진 문성진 스타일리스트 문지윤 어시스턴트 정지혜, 황남주 도움 주신 곳 공평아트센터(02-3210-0071), KDCF(02-733-9041), 아르마니가사(02-540-3094),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02-541-8484), 에트로(02-3018-2312), LVS크래프트(02-2243-7475), 차이 김영진(02-333-6692)



7



8



9



10



11



12

7 꽃 브로치는 공평아트센터, 이원미 작가의 연보라 색상의 돈 보자기와 김연진 작가의 변형 실크보자기는 모두 KDCF. 8 부드러운 소재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벨티드 모자는 로로피아나. 9 커리이트 소재의 엄기순 작가의 브로치는 공예문화진흥원. 10 천연 옷칠로 접었을 때 그림감이 뛰어난 이현경 작가의 투톤 자개 볼펜은 공평아트센터. 11 실버와 골드 컬러감으로 프랑스 전통 매듭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림백은 차이 김영진. 12 모던한 듯 유려한 감각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민수 작가의 와인잔은 LVS크래프트.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리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주름과 탄력저하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가장 큰 피부 고민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설화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안티에이징 제품인 자여진에센스는
전통 한방 비법과 현대 과학이 만난 명품으로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리는
아름다운 혁신을 예고할 것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삶의 연륜과 함께 감성의 여유로움이 마음에 드러워지기에 그리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감이 피부에 나타나며 눈으로 현저히 보여지는 주름과 탄력저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여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스트레스와 호르몬의 불균형 등 매끈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두루 겪고 있다. 하지만 그 유해요소들을 말끔히 퇴치했노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마치 기초 화장품처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비타민제를 달고 살며, 좋다는 바다 건너 외국 브랜드의 안티에이징 제품을 마치 피부에 컬렉션 하듯 공을 들인다 한들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는 피부는 세월의 흔적으로 포기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말끔히 포기하고 유유자적 할 수도 없다. 잠깐 방심한 사이에 그 세월의 흔적이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영역을 넓혀가는지 피부로 느껴보지 않았는가. 20대 중후반 건조함으로 시작된 피부 노화는 30대에 탄력저하와 잔주름으로 그리고 40대에 깊은 주름과 피부 꺼짐으로 이어진다. 50대 이후에는 접힌 주름과 피부 늘어짐으로 심화되는 주름줄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주름줄기 현상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해답을 설화수에서 찾아냈다. 강력한 효능을 자랑하는 인삼 캡슐 성분의 자여진에센스가 바로 그 해답으로 주름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인 피부탄성 저하에 주목, 피부탄성을 가꾸어 차오르는 탄력으로 깊어지는 주름을 밀어내게 한다. 피부의 탄성이 서서히 힘을 잃고 무너지면서 주름은 깊고 넓게 피부 속을 파고들기 시작한다. 설화수 자여진에센스는 이러한 탄성을 강화시켜 주름을 속에서부터 차올리며 피부 탄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주름이 완화되고 피부 본연의 탄력은 매끈한 피부 표면으로 이어지며 맑은 윤기까지 돌게 하기에 설화수 자여진에센스는 모든 나이를 아우르며 주름과 탄력저하 고민을 해결하는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Aging is not a sad thing as it signifies a wealth of life experience and rich sentiments, but the sagging skin and the wrinkles that become prominent on your skin as you age cause much stress. Every woman is well aware of the factors that interfere with smooth and resilient skin, such as the stressors and the hormone imbalance, but no one can confidently say that she has removed all of these aggressors.

Sulwhasoo has found the essential solution for the wrinkles and loss of resilience that concern most women at any age. Capsulized Ginseng Fortifying Serum formulated with powerful ginseng capsules finds the root cause of wrinkles to wipe away the wrinkles and enhance the skin's resilience with the power of elasticity. Between the outer and inner skin is an elastic membrane that is responsible for the skin's resilience. As this elastic membrane gradually loses power and collapses, the wrinkles spread more deeply and broadly. Sulwhasoo Capsulized Ginseng Fortifying Serum nourishes and reinforces this membrane to fill up the wrinkles from deep within, for greater skin resilience. The natural resilience of the skin that has been restored as the wrinkles go away leads to smooth and radiant skin. This is why Sulwhasoo Capsulized Ginseng Fortifying Serum is the perfect anti-aging solution for wrinkles and loss of resilience at any age.

Formulated with precious ingredients and state-of-the-art technology, Sulwhasoo Capsulized Ginseng Fortifying Serum is the outcome of modern science maximizing the wisdom and efficacies of traditional science. Ginsenisphere™, the ginseng capsules created based on Sulwhasoo's 50-year research on ginseng and outstanding encapsulation technology, is the core technology of Capsulized



번성할 자滋, 같은 여如, 보배 진珍, 즉 보배와 같은 귀한 원료와 기술로 만들어진 설화수 자여진에센스는 지혜로움으로 가득한 전통 과학과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현대 과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설화수 50년 인삼 연구와 뛰어난 캡슐 기술력에 의해 탄생된 인삼 캡슐인 진세니스피어™는 자여진에센스가 품은 핵심 기술력으로 피부에 흡수가 힘들었던 홍삼 다당체를 캡슐화하여 피부에 흡수시키는 매크로 진세니스피어™와 피부 흡수율을 기존 캡슐 기술대비 4배 높여 인삼의 효과를 전달하는 마이크로 진세니스피어™로 구성, 탄력이 떨어진 피부에 명쾌한 해답을 제공한다. 이 성분들은 탄성 4가지 핵심 요소를 강화시켜 피부에 바르는 순간 빠른 흡수력을 통해 피부속에 전달되어 피부에 탱탱함이 감도는 생기를 주어 맑게 빛나는 피부까지 연결된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향한 설화수의 기품 있는 노력은 기술뿐만 아니라 전통 소재를 이용, 새롭게 재해석한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 광고에서도 빛을 발한다. 높은 탄성의 힘으로 주름을 밀어내는 자여진에센스와 탄력을 향상시킨 김현주 작가의 황동 공예 작품은 마치 하나처럼 어우러지며 모두에게 ‘탄성’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제품의 진정성 또한 용기에서도 보여진다. 자여진에센스의 투명 용기를 통해 인삼 캡슐 제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에센스를 펌핑하면 인삼 캡슐이 바로바로 터지면서 보다 신선한 상태의 내용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탱탱함이 감도는 내용물의 향기는 청명하고 알싸한 인삼향이 느껴지며 시간이 지나면 인삼의 강한 향보다 은은한 허브의 잔향이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기에 피부는 물론 마음의 안정까지 도모한다. S

에디터 권지애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

인삼 캡슐의 강력한 효능으로 피부탄력을 차올리는 안티에이징 제품인 자여진 에센스

Ginseng Fortifying Serum. It consists of Macro Ginsenisphere™, which has capsulized the red ginseng polysaccharides that hardly penetrate the skin for greater penetration, and Micro Ginsenisphere™, which multiplies the penetration fivefold to deliver the powerful ginseng formula to the elastic membrane. Together, they provide the ultimate solution for wrinkles and loss of skin resilience. These ingredients reinforce the four major proteins of the elastic membrane and deeply penetrate the skin almost instantly. The nourished elastic membrane ensures firm vitality for a clear and bright complexion.

Sulwhasoo's efforts at harmonizing tradition and modernity extend to its collaborative advertising with an artist who has newly reinterpreted the product using traditional materials. Artist Hyun Joo Kim's brass craft depicts Capsulized Ginseng Fortifying Serum wiping away the wrinkles and enhancing the skin's resilience with the strong power of elasticity. All the elements blend into one to deliver the clear message of "elasticity."

You can also observe the authenticity of the product on the container. Capsulized Ginseng Fortifying Serum's clear container allows you to see the ginseng capsules, and the container's UV coating prevents the deterioration or alteration of the contents by sunlight or high temperature. As you pump the serum into your palm, the ginseng capsules burst instantly for application in the freshest and most optimal state.

The formula that feels firm and rich at your fingertips has the cool and pungent fragrance of ginseng at first, and then the subtle after-smell of herbs smoothly wraps around your face, providing stability and comfort to your skin, body, and mind.



3인의 건축가, 다양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다

그동안 전통공예를 주제로 그 본래의 가치를 되짚고 현대미술과의 소통을 통한 문화의 장이었던 설화문화전이,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간 도약을 시도한다. 전통문화의 현대적인 재해석 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오감을 채우는 전시로 적극적 소통을 시작하려 하는 것. 스킨닉스(SKIN=NIKS)를 주제로 진행되는 2014년 설화문화전을 향한 관심 어린 궁금증은 전시 날짜가 가까워 질수록 증폭된다.





삼청동의 붐비는 거리, 골목 초입에 자리 잡은 작업실에서는 소리 없는 전초전이 벌어진다. 컴퓨터 앞에선 마우스가 현란하게 움직이고, 스케치를 하는 연필의 사각 대는 소리는 끊임 없이 거칠게 이어진다. 그 옆으로는 설화수의 제품들과 패키지들이 평상시와는 다른 형태로 독특한 구조물 속 하나의 오브제로 변모하고 있다. 이곳은 이번 2014년 <설화문화전>의 총 디렉팅을 맡은 AnL스튜디오, 3인의 사무실로 전시 시작 두 달 전의 모습이다. 기존의 <설화문화전>을 준비하던 작업실과는 사뭇 다른, 색다른 풍경으로 그들은 장인의 정신을 이어 받은 전통 공예가도, 새로운 오브제로 놀라운 예술 작품을 그리고 만들어 내는 일반화된 범주에 속해 있는 아티스트도 아니다. 그들은 공간을 창조, 재구성하는 건축가들로 다양한 실험적 오브제의 건축물과 상상 이상의 공간 설계로 주목받고 있는 도전적인 모험가이기도 하다. 전통과 현대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그들이 선택한 공간안에는 무엇이 세워지고 채워질까?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 또는 공간과 사람까지 아우른 모든 매개체 간 만남의 접점을 스킨이라 정의 했습니다.” 신민재 소장은 말한다.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스킨, 즉 피부를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피부가 닿았을 때 서로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고 차가운 공기나 뜨거운 바람이 피부에 부딪혔을 때 보이지 않는 공간의 기운을 느끼게 되고 손으로 물건을 만지는 순간 물건의 형태와 텍스처를 느낄 수 있는 만큼 오감으로 느껴지는 매개체 간의 접점을 소통의 시작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통을 위한 매개체로 무엇이 등장할지가 궁금했다. 건축쟁이들이기에 텅빈 공간에 보는 이의 동선을 고려한 공간 속 큰 형태를 설계하고 그들이 만들어 낸 또 다른 공간안에는 다른 아티스트와의 협

업이 이루어진다. 어떤 공간에는 작가의 그림이 등장하고 다른 공간에서는 비디오 아트가 시각을 자극하며 층계를 따라 올라간 새로운 곳에서는 텍스처가 살아 있는 무언가를 통해 촉각의 소통을 시도하려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작업은 진행 속도가 붙을수록 조금씩 달라지기에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가 완성 될지는 그들 역시 모른다한다. 그래서 더욱 이번 설화문화전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보고 느끼냐는 보는 사람의 몫이죠. 어떤 반응 들이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저희들 역시 무척 궁금합니다.” 건축물의 디테일한 디자인 작업을 맡은 이민수 소장의 말이다.

같은 사물이라도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같아 보이지만 다른, 달라 보이지만 같은, 보는 관점에 따라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환경을 전시 공간 안에서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또한 안기현 소장은 이번 전시가 갖고 있는 근본적 의미에 대해 힘주어 말한다. “외적으로 보면 지극히 현대적인 작업 같지만 그 안에는 전통의 감성과 요소들이 짙게 묻어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현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조화와 균형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여러가지 체험적인 전시요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세대를 아울러 소통하려 합니다.” S

에디터 이은선 사진 이은숙

* 2014 <설화문화전> 전시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전시장소는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0/도산공원 입구 맞은편) 건물이다. 전시 외 프로그램으로는 주변매장들과 함께하는 설화문화전 Day,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연말파티, 아티스트 토크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윤경





〈설화문화전〉을 다시 보다

1



2



3

전통을 현대의 시간으로 이끌어 당기어 다시 새로운 예술로 탄생시키는 작업은 어렵지만 진중한 의미를 지닌 일이다. 이러한 작업을 전통 장인과 현대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것이 <설화문화전>이 갖고 있는 기본 철학이라 할 수 있다. 그 시작은 <설화문화의 밤>으로 2006년 '한국의 아름다운 색'에서 펼쳐졌는데 은근한 색채로 전해 내려오는 선조의 자취를 작품으로 승화시킨 8인의 작가들이 가장 한국적인 색을 그들의 작품으로 표현했다. 2007년 '한국의 아름다운 문양'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는 만든 이의 염원과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미감을 고스란히 담아낸 전통 문양을 날카로운 지성과 애뜻한 사모의 마음으로 한국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6인의 작가들이 아름다움으로 풀어냈다. 그 후, 2009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는 <설화문화전>으로 그 철학이 이어져 오고 있다. 장인들의 강인함이 깃든 전통을 향한 정신과 제작기술을 재조명하고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여 '전통 공예와 현대미술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2012년부터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 전시를 열어왔다. 소박하지만 가장 화려하기도 한 백색의 아름다움을 중요무형문화재 전통 공예작가 8인과 현대작가 8인의 앙상블로 펼쳐 보인 전시 <백미(白美)>(2009)를 시작으로, 핸드메이드로써 완성도가 높은 수작(秀作)을 지향하며, 그 작품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수작(酬作)을 의도한다는 <수작-간절한 만남>(2010), 전통장인, 소금장인, 현대작가 11인이 참여하여 관람객들이 정원을 산책하듯 거닐며 작품의 소재가 지닌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만나게 한 <가설의 정원>(2011), 강진, 제주, 울산 등 각 지역의 옹기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작가가 옹기토를 소재로 10여 점의 신작을 완성함으로써 생활 옹기가 가진 또 다른 예술성을 재조명한 <흙, 숨을 쉬다, 옹기>(2012), 전통 공예 장인들이 재현한 우리 궁시의 원형에서부터 그것을 모티프로 구현한 현대작가들 9팀의 개성적인 작품을 통해 활이 지닌 힘의 변주를 보여준 <활력, 시대를 관통하다>(2013)로 이어졌다.

<설화문화전>은 현대적이면서 전통적이며, 전통적이면서도 다른 어떤 전시보다 '새로운' 모던함을 담고 있다. 또한 실용 미술과 순수 미술과의 경계를 허무는 또 하나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의미를 지닌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설화문화전'은 그동안 전통공예를 주제로 그 본래의 가치를 되짚고 현대미술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전통과 현대가 서로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도록 돕는 문화소통의 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어 왔다. 2014년, 설화문화전이 한걸음 더 나아가 도약을 시도한다. 설화수의 브랜드 철학인 '조화와 균형'에 대한 심도있는 재해석을 통해, 내면과 외면, 물체와 환경, 주체와 객체 등 공존하는 관계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여러 세대와 함께 공감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 <설화문화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전통과 현대, 그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2014년에는 좀 더 짙어진 그러나 모든 세대와의 소통을 추구하며 여전히 전통을 소중히 지키고 전하는 설화수의 의지를 담아 보다 적극적인 新문화적 공간 전시를 선보일 것이다. S

에디터 이은선



4



5

1 2009년 설화문화전 <백미(白美)>, '도예' 이한정. 2 2010년 설화문화전 <수작-간절한 만남>, '백동좌경합' 박문열. 3 2011년 설화문화전 <가설의 정원>, '할' 김윤동. 4 2012년 설화문화전 <흙, 숨을 쉬다, 옹기>, '옹기' 김정길. 5 2013년 설화문화전 <활력, 시대를 관통하다>, 'Still Life' 구병준

2014 설화문화전 <스킨스(SKIN=NIKS)>

다양한 관계와 만남의 경계로서 작용하는 '스킨(SKIN)'을 2014년 전시의 소재로 주목. <스킨스(SKIN=NIKS)>라는 2014년 <설화문화전> 주제를 제시한다. <스킨스(SKIN=NIKS)>는 SKIN과 SKIN이 반전된 NIKS가 조합된 단어로, 복잡하고 다변하는 일상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조화와 균형에 대한 질문이며, 새로운 설정과 체험들로 이루어진 반전된 환경을 의미한다. 같은 사물이라도 처해진 환경이나 보는 사람의 관점과 감정에 따라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관점과 감정들의 "조화와 균형"이 우리시대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전통에서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 기존 설화문화전을 바탕으로 두고, 글로벌한 지역과 문화, 그리고 다양한 세대와 시간의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관계와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세대를 달리했던 오래전부터
우리네 선조들은 백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귀히 여기며 살아왔다.
차가운 겨울에도 온화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잃지 않던 조상들은
백의민족으로서 숭고한 삶을 지향했다.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나
관습에서 백색이 주는 깊고 넓은 의미를
깨달으며 곧은 의미 그대로를 일상에서
실천한 것이다. 단조롭게 들리고
단순하게 보이지만 백색은 다양한 감각을
품은 다채로운 컬러이기도 하다. 아주
희다는 의미로 순백純白, 수백粹白이라
했고 선명하게 하얀 것은 선백鮮白이라
한다. 이렇게 다양한 백색들은 생활
곳곳에서도 발견된다.





너그러운 색으로 품다



너그러운 색으로 품다

백의민족, 광명을 입다

“한국 빨래의 흰색은 현성축일에 나타난 예수님의 옷에 대해 성(聖) 마가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세상의 그 어떤 빨래집도 그토록 희게 만들 수는 없다던...” 19세기 말에 이 땅을 찾았던 이사벨라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중 한 대목이다. 태양의 광명을 숭상하여 흰옷을 즐겨 입었던 백의민족!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흰옷엔 과연 어떤 내력이 담겨 있는 것일까?

흰색을 숭상하는 민족

한민족의 흰옷 사랑은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다. 3세기에 진수가 펴낸 삼국지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부여인들의 의복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포복으로 만든 소매 넓은 도포와 바지를 입는다.’ <삼국지 위지동이전> - 부여조 그것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음은 뒤이어 나오는 기록들을 통해 확인된다. 7세기에 편찬된 <수서(隋書)>의 ‘신라조’에는 ‘신라인들은 의복의 흰 빛을 숭상한다’라는 구절이 있고, 14세기 문헌인 <송사(宋史)>의 ‘고려전’에도 ‘고려에서는 남녀의 옷으로 백색을 숭상한다’고 적혀 있다.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를 방문했던 서긍은 <고려도경>에 ‘고려인들은 대부분 베옷을 입는데 제일 좋은 것은 깨끗하고 새하얗기가 옥과 같다. 고려 왕은 평상 시 실 때에 검은 모자에 흰 모시 도포를 입으므로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 한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백성들뿐 아니라 임금과 귀족들 또한 흰옷을 선호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개항 이후 이 땅을 찾은 서양인들에게 조선인들의 흰옷은 매우 이국적이고 독특한 풍경이었다. 1858년 부산포에 정박한 영국인들은 조선의 첫인상을 이렇게 적었다. ‘주민들은 흘러내리는 듯한 겉옷과 높게 솟은 검은색 모자를 썼다. 옷은 대부분 흰색으로 모시 또는 면직물이다. (...) 허리엔 벨트를 차고 바지는 발목 부위에서 묶고 발은 먼 스타킹으로 감싸고 짙은 색의 신기한 신발을 신었다.’ <The Illustrated London News 1858. 4. 24.>

인파가 모여드는 곳은 마치 솜밭처럼 하얗게 보였다는 동방의 국가. 그 풍경에 눈길을 빼앗긴 이방인은 비숍 여사만이 아니었다. 흰 무명옷을 눈부시도록 새하얗게 빨고 있는 냇가의 여인들을 본 <아리랑>의 저자 님 웨일즈는 ‘이상주의와 순교자의 민족이 아니라면 청결을 위해 그토록 힘든 노동을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썼다. 설령 그것이 ‘구미 열강’의 빗나간 오리엔탈리즘이었다 해도, 조선의 흰옷이 저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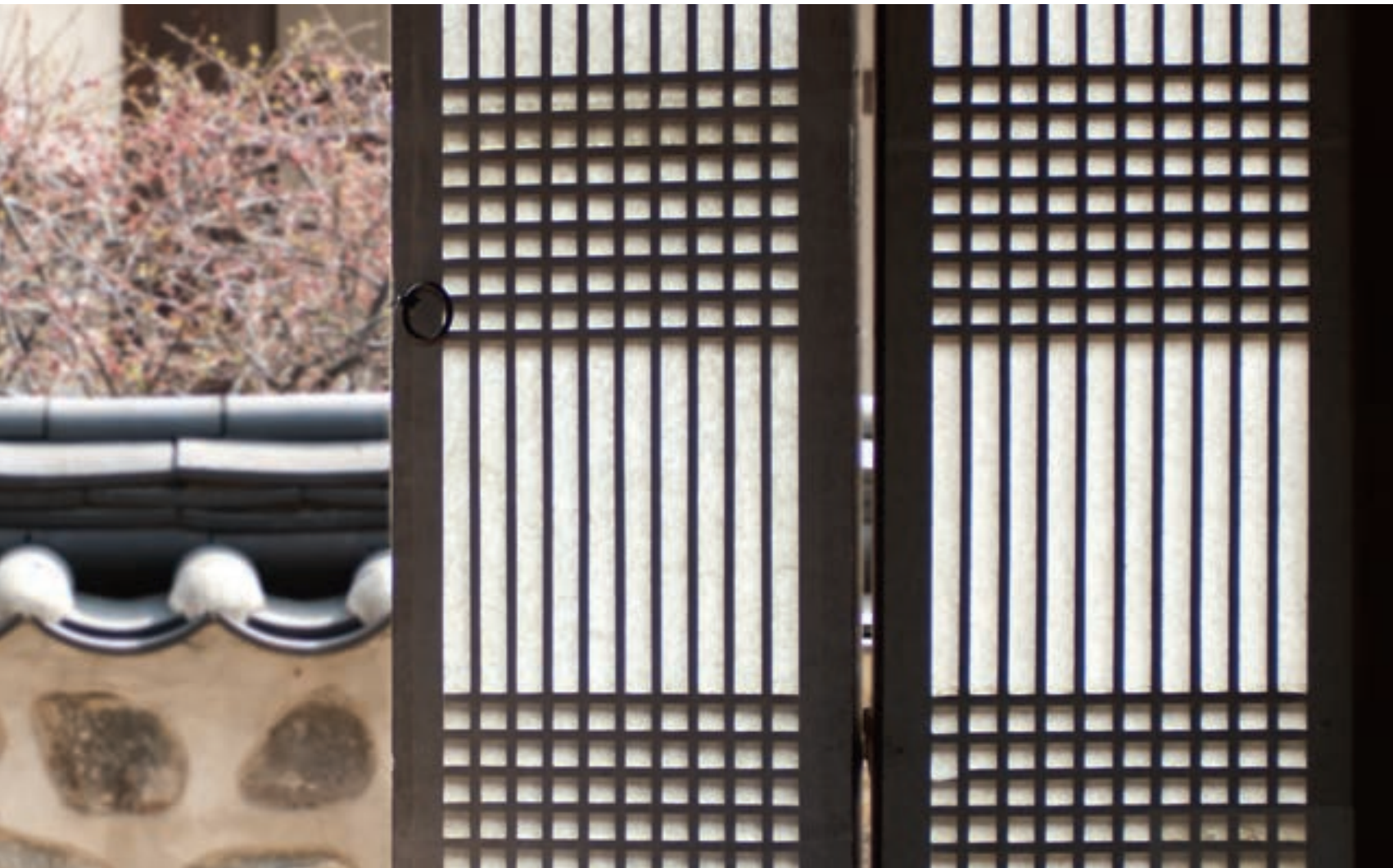
흰옷을 사랑하되 화려함도 마다않은

옛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그렇듯 흰옷을 선호하게 된 것일까? 가장 널리 인용되는 것은 <조선상식문답(1946)>에 나오는 최남선의 설명이다.

‘조선 민족은 예부터 태양을 숭상하며 스스로가 하늘의 자손이라 믿었는데, 태양의 광명을 표시하는 의미로 흰 빛을 신성하게 여기고 흰옷을 자랑삼아 입다가 나중에 온 민족의 풍습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민족이 ‘오로지’ 흰옷만을 입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부여인들은 외국에 나갈 때 실크, 모직, 가죽옷과 금으로 장식한 모자로 화려한 복장을 갖추다’라는 대목이 있는 걸 보면, 그 시절에도 염색 기술

백자장군은 조선 전기에 순백자로 제작되었던 대호(大壺)와 원(碗)과 같이 그 크기가 후대의 것과 비교할 때 크고, 백자의 빛깔도 거친 듯하지만 순정하며, 형태가 단순하면서도 당당한 풍모를 보인다. 이는 당시 고려 귀족세력을 극복하고 성리학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새로운 국가인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의 힘을 보여준다. <백자장군>,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소장.





조선시대의 백자 산 모양 향꽃이. 산 정상 부분에 작은 구멍을 내어 향을 꽂을 수 있게 했고, 그 아래의 산 입구 부분은 짐 모양 주위로 한 마리의 반룡(蟠龍,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땅에 서리고 있는 용)이 산을 감싸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나 패션 감각이 전혀 뒤쳐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상에선 흰옷을 즐겼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화려한 옷을 만들어 입을 줄 알았다는 뜻이다.

단적인 예가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화려한 의복이다. <안악 3호분> 속 여인의 옷엔 복잡한 문양이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얇은 견직물에 색실로 자수를 놓은 모습에서 당시의 뛰어난 염색 기술이 한눈에 드러난다. 당나라를 방문한 각국 사신들의 모습을 그린 <왕희도>에서도 고구려 사신은 단연 돋보이는 입성을 과시하는데, 그가 입은 ‘금수(화려하게 수놓은 실크)’는 당시 고구려의 주된 수출품이기도 했다.

고구려 벽화엔 오색찬란한 의복을 걸친 왕이나 귀족 외에 군인, 평민, 노비까지 다양한 신분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평민은 물론이고 노비들도 무늬가 들어간 색옷을 입고 있다. 신라에선 염색 전담 인력을 갖춘 공장을 운영할 만큼 염색이 전문화되어 있었고, 고려 또한 마찬가지였다. 송나라 사신 손목의 <계림지> 중 한 대목이 이를 뒷받침한다.

‘고려에서는 염색을 잘하는데 홍색과 자색이 더욱 묘하고, 자초의 굵은 뿌리로 즙을 짜서 비단을 물들이면 매우 아름답다.’ 조선시대엔 검박함을 추구하는 유교 사상과 가장 어울리는 색깔이 흰색이라 선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 때에도 흰옷 일색은 아니어서, 18세기 김홍도의 그림 <월야선유도>에 나오는 인물들은 흰색 외에도 청, 황, 갈, 홍, 흑 등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 흰옷을 사랑한 민족이라고 해서 화려함을 마다한 건 아니며, 일각에서 주장하듯 염색기술이 부족하거나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흰옷만 입은 건 더욱 아니라는 얘기가.

임금도 제국주의도 막지 못한 흰옷 사랑

19세기 이후 늘어난 면직물은 기존의 마직물(삼베, 모시)보다 염료가 많이 들어 색옷의 값이 비싸졌고, 이에 따라 백성들의 옷도 열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잦은 가뭄, 전염병, 관료들의 수탈 등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거리엔 점점 흰옷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근거로 “한민족이 원래부터 흰옷을 좋아했던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는데, 그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13세기 말, 고려 충렬왕에게 ‘흰옷 금지’를 요구하는 상소문이 올라온다. 동양의 우주관인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동쪽은 푸른색, 남쪽은 붉은색, 서쪽은 흰색, 북쪽은 검은색, 중앙은 황색이다. 고려는 동방에 위치하므로 푸른색을 숭상해야 하는데 백성들이 너나없이 흰옷을 즐겨 입으니 마땅히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고려에선 14세기에 흰옷 금지령이 두 차례 내려졌다. 조선에서도 18세기 말까지 무려 23회에 걸친 금지령이 있었다. 방위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상복과 같은 색이니 입지 말라는 것. 하지만 금지령들은 매번 흐지부지되거나 반대의견 상소에 의해 철회되는 것으로 끝났다. 그 어떤 절대군주도 백성들의 흰옷 사랑을 강제로 막지는 못했던 것이다.

일제시대엔 도리아마라는 자가 <조선백의고>에서 ‘고려가 몽고에게 망한 뒤 망국의 슬픔 때문에 흰옷을 입기 시작했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폈다. 총독부에선 “흰옷은 자주 빨아야 해 경제성이 떨어지니 검은색을 입으라”고 강요했고 거리에서 흰옷에 먹물을 뿌려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백성들은 흰옷을 고집했고, 그것은 이내 항일의 상징이 되었다. 고종의 장례일에 맞춰 일어난 3·1운동 때는 조선 전체가 흰옷으로 뒤덮였으니, 그날의 백의는 억눌린 민족의 분노인 동시에 광명의 흰 빛을 향한 염원이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 70여 년, 사람들의 옷차림은 나날이 화려해졌다. 이제 이곳이 백의민족의 땅이라는 징표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유전자에 새겨진 문화적 지문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아서, 지금도 우리는 스스로를 백의민족이라고 부른다. 바라건대 그 말에 담겨진 의미만은, 빛을 숭상하고 광명을 추구하는 정신만은 탁하게 물들지 않기를. S

에디터 권지애 글 박경수 사진 이종근 이은숙

생활에 기품을 더하며 조화로이 어울리니

가만히 집 안 풍경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백색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흰옷을 즐겨 입으며 하얀 헝겊로 정을 나누고 희고 고운 침구로 귀한 따뜻함을 표현했는데 이렇듯 백색은 주변 자연의 색과 안정적인 조화를 이루며 고귀한 삶을 그려낸다.

에디터 권재애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 참고 문헌 <우리 규방문화> 현암사 도음 주신 곳 가람공방(02-814-0250), 그루(070-7569-8334), 우일요(02-763-2562), 종이나무갤러리(02-766-3397), 진주셀(02-2253-7585), 차이킴(02-736-6692)



이토록 곱고 편한 잠자리

달이 뜨는 밤이면 매무새를 다시 한 번 정갈히 하고 잠자리에 든다. 이불이 주는 넉넉한 포근함과 여유로움은 예나 지금이나 정감 깊은 의미를 같이한다. 꿇을 때는 물론 개졌을 때 역시 단아함이 물씬 풍기기에 머리맡에 두고 봐도 아름답다. 한겨울 이불에는 두툼하게 솜을 넣거나 누비어 냉기를 피한다. 희고 소담한 베갯잇을 씌우고 베갯모마다 수를 놓아 화려한 멋을 더한 베개는 개킨 이부자리 위에 올려놓으면 방 안을 꾸미는 은근한 멋이 있는 훌륭한 장식 소품으로 변신한다.

면 소재의 누빔 침구는 그루.



단장하고 눈길 나서는 두루마기

소복이 눈 내린 겨울 길, 선이 고운 한복 곱게 차려입고 따뜻하게 몸을 감싸줄 두루마기를 입는다. '두루 막혔다'라는 뜻으로 방한의 목적이 강했던 옷이지만 멋과 풍류를 아는 이들에게는 품위를 장식할 겹옷의 화룡점정으로 여겨진 미의 백미다. 백이 두루마기, 홀단 두루마기, 겹과 슌 두루마기가 있다. 계절에 맞춰 입는데 주로 겨울에는 명주, 모직, 무명, 부사견 등의 소재를 사용한다.

누빔 두루마기와 하얀 고무신은 차이감.





달빛, 물빛 담아 은은한 생활백자
공간을 채워주며 깊이를 더해 주는 달향
아리 외에도 백자는 생활 곳곳에 요긴하
고도 쓰임새 많은 친근한 존재로 우리네
조상들의 삶과 더불어 역사를 만들어왔
다. 담백하고도 소박한 색감으로 음식을
담으면 그 음식의 빛깔과 식감을 살리며,
차를 부어 대접할 때면 고즈넉한 평온의
기운까지 전달한다. 돌이 풍화되어 만들
어진 하얀 흙인 백토로 만들어진 백자는
전통의 멋과 함께 미래로 이어질 명물 중
하나다.

차 주전자와 다기 세트는 우일요, 김희종 작가의 원형
단접시는 식가구.

풍요로움을 더해 대접하는 흰쌀

윤기가 흐르고 탱글한 모양이 일품인 흰쌀은 부유함의 상징이기도 했다. 또한 요즘과는 달리 배고팠던 시절에 흰쌀은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나 집안의 가장 높은 어른님께 올리는 진지상에 올려졌던 만큼 대접하는 이의 진심과 공경의 마음이 담기어 있다.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끓이던 흰쌀 죽은 만든 이의 정성이 더해진 큰 보약으로 여겨졌기에 흰쌀은 공들여 만들어 대접하는 귀한 마음의 표현이다.

정사각형의 도자 합은 우일요



난을치고글을쓰는선비의벗

까만 먹을 갈아 희고 흰 붓에 묻혀 한지 위에 조용히 난을 치고 글을 쓴다. 선비의 벗으로 문방사우는 벗 이상의 진중한 신념과 집념의 매개체로 다가온다. 붓끝에 마음을 집중하고 붓이 멈추는 순간 정신을 가다듬고 깊은 숨을 내쉰다. 붓과 벼루를 깨끗하게 씻어 잘 말린 후 다시 쓰곤 하였는데 잘 말린 붓은 벽에 걸어두어 사랑방에 운치를 더하며 우리네 선비와 함께 끈은 길을 걸어왔다.

부드럽고 하얀 털 붓은 서령필방, 벼루와 연적은 우일요.





창이 되고 문이 되는 한지

우리의 한지는 중국의 선지나 일본의 화지에 비교할 바 안 되는 탁월한 우수함을 갖고 있다. 닥나무를 베고, 찌고, 껍질을 벗기고, 삶고, 담그고, 말리는 등 아흔아홉 번의 과정을 거친 다음 일백 번째 장인의 손길을 거쳐 나오기에 한지는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섬세함과 재질을 자랑한다. 오래전 여인들이 문창의 세월로 인해 변색된 창호지를 벗겨내고 새 종이를 발라 한낮의 따사로운 햇빛과 저녁 달빛을 받아들였다. 건축물은 물론이요, 가구의 훌륭한 일품 재료로 사용되는 한지는 무한의 가능성을 가진 전통이 만든 지혜다.

한지와 고재나무로 만든 문살대접장은 김정순 작가 작품으로 종이나무갤러리.

본연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자개 경대

방 안에 살포시 놓아둔 경대를 꺼내고 거울을 세워 얼굴에 곱게 분을 입히고 서랍함 안쪽에 깊숙이 간직해두었던 비녀를 꺼내어 머리에 꽂는다. 경대는 선비의 문방사우만큼이나 여인들에게 아름다움을 위한 좋은 벗으로 통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대중화되어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긴 머리와 상투를 틀기 위해 사용했다. 형태는 여성용과 구조가 같으나, 대개 여성용보다 소형으로 하나의 서랍이 있고 장식이 없어 소박한 멋을 풍긴다. 자개 소재 눈빛경대는 진주셀은 소재 봉황은잠 봉황은용잠은 기원공방.





곱게 빗은 머리 위 여인의 장신구

옛 여인들에게 장신구는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표시함은 물론이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소중한 귀중품이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곱게 빗어 다듬어 틀어올려 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고정했던 비녀는 꽃은 이의 넋을 모으는 마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내면세계를 반영하는 화장도구로도 여겨졌다. 비녀의 명칭은 잠두(簪頭)의 모양에 따라 봉황잠, 용잠, 원앙잠, 매죽잠, 모란잠, 석류잠, 국화잠 등이 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른 백옥잠과 옥 국화 펜던트 목걸이는 기원공방, 상아와 호박 소재 브로치는 엄기순 작가 작품으로 공예문화진흥원

음양오행이 조화를 이룬 색(色)의 지혜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 소멸에 관한 옛사람들의 통찰은 일상 구석구석, 이를테면 옷이나 음식의 색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의 색채이론에 해당하는 그 사상의 근원은 음양오행설이다. 태초에 음과 양의 기운이 생겨나 땅과 하늘이 되고 두 기운이 다시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을 생성했다는 것. 그 각각의 색깔이 바로 청, 적, 황, 백, 흑 오방색(五方色)이다.

토(土)에 해당하는 황색은 빛의 색이자 흙의 색. 만물의 근원이며 동서남북의 중앙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색으로 여겨졌다. 천자의 색이었기에 왕이 아닌 일반인들은 황색 옷을 입을 수 없었다. 고려 때까지는 왕들이 중국처럼 황색 옷을 입었지만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청색 곤룡포를 입었는데, 토(흙)의 상극인 목(나무)의 기운을 지닌 청색으로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였다. 태종 이후엔 중국의 간섭 때문에 임금들이 황색도 청색도 아닌 붉은 곤룡포를 입었는데, 황색 옷을 다시 입은 건 스스로를 황제라 칭한 고종에 이르러서였다. 목(木)에 해당하는 청색은 동쪽을 상징하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풍요로움을 의미한다. 청색은 액막이로 많이 쓰였는데, 태양이 쬐는 동쪽의 색이라 양기가 가득하여 잡귀를 예방한다고 여긴 까닭이다. 금(金)에 해당하는 백색은 서쪽의 색이며 가을을 나타내고, 수(水)에 해당하는 흑색은 북쪽의 색으로 겨울을 말한다.

화(火)에 해당하는 적색은 남쪽과 여름을 상징하는데, 양기가 왕성한 생명의 색깔이며 귀신을 물리치는 강력한 벽사의 색깔이기도 했다. 노인과 아이들이 늘 붉은 주머니를 차고 다녔던 건 그 때문이다. 임금의 옷 색깔이라 함부로 입지 못하던 붉은 옷을 백성들이 입을 수 있게 된 건 고종이 붉은 곤룡포를 황색으로 바꾼 뒤부터였다. 선교사 오페르트와 <금단의 나라 조선 기행(1880)>에 의하면 당시 조선에서는 대부분 흰옷을 입었지만 아이들의 옷 중에 진홍색이, 부녀자들의 경우엔 장밋빛이 꽤 흔했다고 한다.

오방색과 관련된 생활 풍습은 일일이 꼽기 힘들 만큼 다양하다. 음귀를 몰아내기 위해 혼례 때 신부가 바르는 연지근지,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명절 때 아이들에게 입히는 색동저고리, 간장 항아리에 붉은 고추를 끼워 두르는 금줄, 잔칫상 국수에 올리는 오색 고명, 신년에 붙이는 붉은 부적 등등.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의 전통 조각보 역시 오방색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

궁궐이나 사찰의 오색단청 역시 오방색을 기본으로 한다. 연화문이나 영기문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청의 문양들은 음양오행에 기초하여 생성하고 순환하는 삼만상을 표현한다. 고구려 고분벽화 또한 오방색에 기초한 옛사람들의 색채 사용과 미의식, 회화기법 등을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서남북 각 방위를 수호하는 사신(四神)을 생동감 있는 색채로 묘사한 강서고분의 <사신도>는 음양오행의 사상적 의미와 오방색의 상징적 의미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자료로 꼽힌다. S

에디터 권재애 글 박경수



禁

雪花秀

인삼의 모든 생명력을 채울 때 비로소, 피부는 힘있게 살아난다

인삼은 뿌리와 열매까지 모두 사용할 때 피부에 전해지는 효능이 강력해집니다
인삼의 모든 생명력을 불어넣어 피부를 힘있게 되돌려주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설화수의 세계 최초 바이오컨버전 기술이 인삼 효능성분을 피부 깊이 흡수시켜
피부의 힘을 탄탄하게 되돌리고, 피부 속부터 윤택한 기운을 차오르게 합니다
인삼의 강한 생명력을 피부 속까지 채울 때, 피부는 다시 힘있게 살아납니다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자음생크림

Sulwhasoo



黑, 깊어가는 겨울의 골

흑색은 오행사상에 따라 '북쪽에 깊은 골이 있는데, 그 물빛이 깊다' 하여 북쪽 방위를 상징했으며, 그 방향과 빛깔이 전하는 차가움으로 인해 자연이 고요한 속면에 들어 대지가 킁킁해지는 겨울을 상징했다. 빛깔이 뿜는 느낌은 육중하고 음습하나, 어디에 숨겨두어도 양칼지게 빛나는 색이 바로 흑색이 아니던가. 겨울, 자연의 깊은 골에서 그 날카롭게 빛나는 흑색을 만나리.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한구(다큐멘터리 사진가)



달
빛
아
래
검
푸
르
게
드
러
나
라

어두컴컴한 밤길의 색을 암색(暗色)이라 한다. 암색은 세상의 형체를 삼켜버리는 칠흑 같은 어둠의 색이 아니라 달빛 아래 푸르게 드러난 서정적인 검은색이다. 희고 질긴 달빛을 등불 삼으니, 검음이 주는 두려움도 이렇게 풍류가 된다. 오늘도 어김없이 세상을 암색으로 물들이는 달이 떴구나. 어둠을 뚫은 그 대범함에 새삼 고개가 끄덕여지는 시린 겨울 밤.

The color of a dark night is known as the Mam Color. The Mam Color is the lyrical bluish-black color under the moonlight, not the complete darkness that swallows everything. Under the long-lasting whiteness of moonlight, even the fear of darkness becomes art. As always at night, the moon is up in the sky to color the world with the Mam Color. On this cold winter night, you nod in recognition of the moon's boldness to shine through the dark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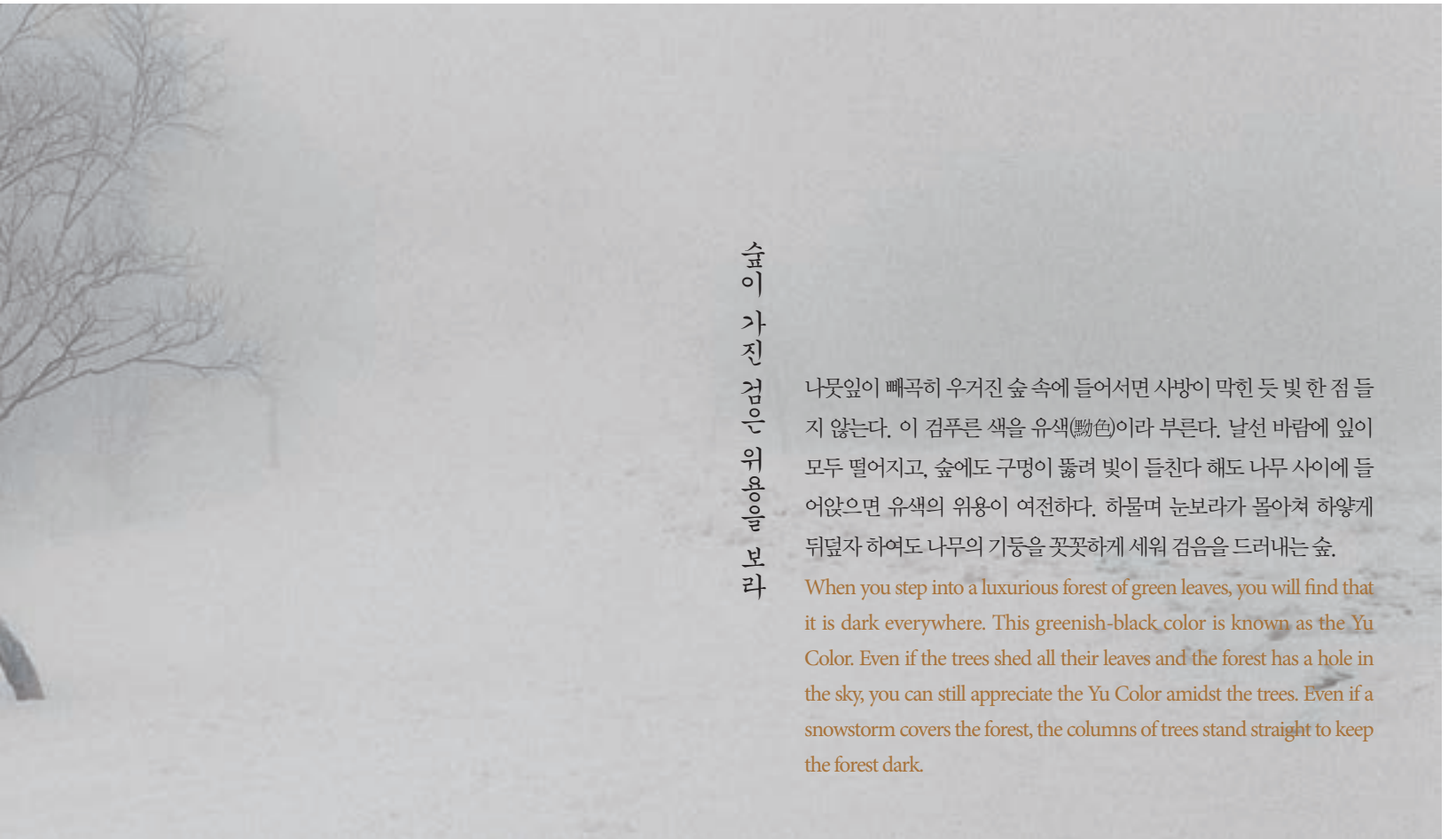
대지에 층층이 쌓여 검게 보이는 흙을 이르는 날색(捏色)이 가장 귀하게 드러난 물상은 기와가 아닐까. 검은 흙을 반죽하여 수키와와 암키와를 빚어 굽고, 암수 쌍을 이뤄 가지런히 포개어 올린 기와지붕 아래서 우리가 짓는 것은 일생의 화복(禍福)이다. 기와의 검은 빛이 퇴색해도 무에 상관 있으랴. 세월의 흔적만큼 길고 긴 복을 짓고 있거늘.

Giwa (roofing tiles) must be the most precious materials that cherish the Nal Color, which refers to the darkness of soil. Under a Giwa roof, which is built by kneading dark soil, molding matching pairs of tiles, and neatly piling the tiles in pairs, we create the happiness of life. It doesn't matter if the darkness of Giwa fades. It will still give you happiness for a long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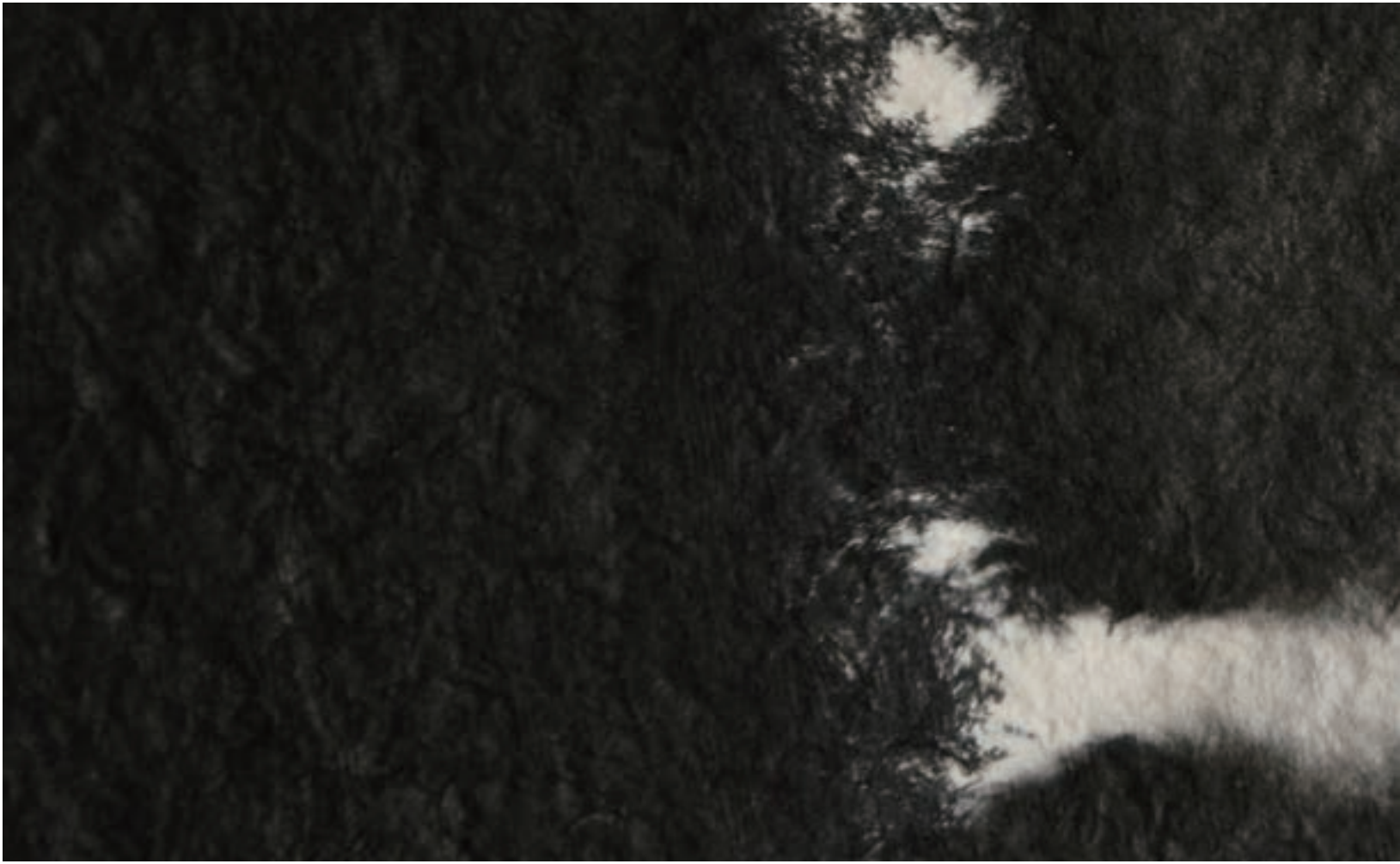




숲이
가진
검은
위용을
보라

나뭇잎이 빼곡히 우거진 숲 속에 들어서면 사방이 막힌 듯 빛 한 점 들지 않는다. 이 검푸른 색을 유색(黝色)이라 부른다. 날선 바람에 잎이 모두 떨어지고, 숲에도 구멍이 뚫려 빛이 들친다 해도 나무 사이에 들어앉으면 유색의 위용이 여전하다. 하물며 눈보라가 몰아쳐 하얗게 뒤덮자 하여도 나무의 기둥을 꼳꼳하게 세워 검음을 드러내는 숲.

When you step into a luxurious forest of green leaves, you will find that it is dark everywhere. This greenish-black color is known as the Yu Color. Even if the trees shed all their leaves and the forest has a hole in the sky, you can still appreciate the Yu Color amidst the trees. Even if a snowstorm covers the forest, the columns of trees stand straight to keep the forest dark.



곱디고운 결과 빛의 기품을 지니다

소복이 쌓인 하얀 눈의 고운 결 위로 살포시 내려앉은
빛의 눈부심은 메마른 겨울에도 흐트러짐 없는
여인의 생기 가득한 얼굴을 닮았노라.

에디터 권지애 사진 이종근



As the Heavy Snow Falls

- Shin, Heum

The valleys are filled and the mountains
are covered to make the world one,
a beautiful world of jade and a sparkling crystal palace.
There is an infinite number of artists in the human world,
but it is difficult to capture all the changes of Yin and Yang.

큰 눈이 내리니

- 신희 申欽

골 메우고 산을 덮어 온 천지가 하나되니,
아름다운 옥 세계, 반짝이는 수정 궁궐.
인간 세상에 화가들 무수히 많다지만,
음양의 변화가 이룬 것을 다 그리기 어렵네.

미안피니서

안색이 중요한 피부 걷은 물론 안에서 치오르는 촉촉
함이 중요한 피부에 작용하며 하루 종일 촉촉하고 윤
기가 흐르는 피부를 만들어준다. 스킨 케어 마지막 단
계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중요 성분인 녹삼효는 강한
자연의 근본적인 생명력을 피부에 전해 준다.





하얀 눈을 읊다

- 이색 李穡

송악산 푸르름에 저녁 구름 물들더니,
눈발 흩날리자 이미 해는 저물었네.
밤 들면 혹시나 이 눈이 그치려나.
새벽엔 은 바다에 눈 빛이 차갑겠지.

자음생 크림

탄력저하 등 다양한 피부노화를 근본적으로 케어하는 고농축 크림. 인삼의 뿌리는 물론 열매까지 사용하여 만든 만큼 힘이 넘치는 인삼 자체의 생기 넘치는 강인함이 그대로 피부에 전해진다.

Singing the White Snow

- Lee, Saek

The clouds of the evening are colored
by the greenness of Mt. Songak.
As the snowflakes scatter, the Sun is already
down.
Would the snow stop at night?
The light of snow will be cold on the sea in
the morning.



존경으로 짜내는 식물 트와이드 마옌(Toiles De Mayenne)

누군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생산한 사례는 역사 속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트와이드 마옌'을 제외하고 말이다. 1800년대 초, 수도사의 옛터에 세워진 '트와이드 마옌' 공장에서는 프랑스의 낭만과 원단을 향한 노동자들의 헌신이 탄생시킨 특별한 원단을 오늘도 짜내고 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줄무늬가 그려진 주이의 직물(Toiles de jouy)로 완성된 원단을 보며 감탄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트와이드 마옌이 아닐까?’다. 프랑스 마옌 지방(ville de Mayenne)의 풍텐느-다니엘(Fontaine-Daniel)에 자리한 트와이드 마옌은 1806년부터 전통을 고수하는 방식 그대로 프랑스만의 무드를 간직한 원단을 선보이고 있다.

풍텐느-다니엘은 프랑스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꿈꾸는 노동자 도시다. 이곳에서는 200년이 넘도록 인본주의를 중시 여기는 드니(Denis) 가문을 중심으로 드물게 지방 단위의 제조방식을 통해 특별한 원단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마옌 지방에서 멀지 않은 녹색 숲에 자리잡고 있는 분홍색 화강암의 아담한 작은 마을이지만, 마옌의 심장부 역할을 하며 두 세기 전부터 활기로 가득한 곳이다. 마옌 지역을 따라 흐르는 앙보르 시냇물이 풍텐느-다니엘에 자리한 시토 수도회를 따라 흐른다. 13세기 수도사들의 흔적으로 보이는 연못의 인상이 강렬한 탓일까. 가지런히 정렬된 건물과 파릇파릇한 채소를 키우는 텃밭 사이를 거닐다 보면, 마치 종교적인 성지에 온 듯 부드러운 정적마저 흐른다.

프랑스 혁명 이후 폐쇄되었던 수도원은 국유재산이었으나, 1806년 프랑스 최초의 기계식 방적공장에 매각되었다. 이곳에서 실을 뽑아 면, 리넨 그리고 자연 삼베를 짰다. 1900년이 되면서 염색도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트와이드 마옌’의 시작이다. 드니 가문의 마르탱 드니가 이 공장의 상속녀와 결혼하면서 공장 경영을 맡게 된 것은 바로 1830년의 일이었다. 이후, 7세대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업계에서는 무모한 짓이라고 볼 수도 있는 독립적인 공장 경영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드니 가문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는 내내 동일한 경영 방침을 고수하며 탄생시킨 이른 바, ‘메이드 인 마옌’이라

1 안뜰이 보이는 반원형의 정원 앞에 세워진 리넨과 면으로 된 수레국화 프린트 원단과 라카노 지방 특산 원단. 2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마을의 건물들. 3 마을 광장에 위치한 다니엘 급수장은 14세기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주조물은 1950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1

2

1 원단에 찍는 직인은 항상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베이지색 바탕에 빨간색 카프리 원단 및 자수 프린트 툴리리 원단 샘플들. 3 줄무늬가 멋스러운 라미투엘 원단. 일정한 길이로 자르고 흠을 파는 것은 기계로 이루어지지만, 조작은 항상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4 오랜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원단 샘플 더미.

는 브랜드의 퀄리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메이드 인 마옌'은 제조의 시작부터 직조 염색, 샘플 등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기에 그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들이 짜낸 원단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현재, 공장에서는 고객을 위한 맞춤 디자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원사 자체는 폰텐느-다니엘에서 생산하지 않고 프랑스 북부지역에서 사온 것으로 만들었으나 물류와 유통 구조가 원활해진 오늘날에는 코튼은 미국에서, 리넨은 벨기에 혹은 헝가리, 아크릴은 스페인, 그리고 폴리에스테르는 이탈리아에서 구매하며 원사 자체의 품질도 높였다.

마르탱 드니가 경영을 맡기 시작한 1830년에서부터 시작하여 1976년까지 지속된 '폰텐느-다니엘 빌리지'의 탄생과 완성은 드니 가문의 섬유 노하우와 공장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향한 인본주의가 탄생시킨 결과물이다. 드니 가문은 '트와이드 마옌' 공장의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해 폰텐느-다니엘에 약식 아파트와 개인 연립주택을 짓기 시작했고, 800개에 이르는 모든 제조 협동조합 역시 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수도사의 오티는 새로운 거주지로 변모하게 되었고, 수도원의 일부는 제조공장으로 바뀌었다. 이곳의 모든 건물은 주택과 공장이 되었다. 이 마을은 휴머니스트의 원리와 유토피아 도시라는 비전에 따라 의무교육이 제정되기 전에는 예배당이나 의원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봤다. 노동자들이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강의실을 만들었고, 극단을 창설하였다. 아이들의 여름 캠프는 항상 드니 가문의 노르망디 풍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인적자원의 개념을 거부하고 가족주



3



4

의적 혹은 사회적 비전을 가진 회사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회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드니 가문은 자율권에 따라 마을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급자족 체제의 생활 방식은 사회 발전에 따른 다른 지역의 경제 및 체계와는 달라 기이한 것으로 취급되기도 하였고, 마옌 지역 주민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탄생한 책이 <한 지방의 직물 (TISSU TOPIQUE)>이다.

이 책은 역사학자, 소설가 혹은 경영자 라파엘 드니 등이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써내려간 '트와이드 마옌'에 대한 이야기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원단에 관한 이야기이자, 이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이뤄낸 건축적 사회적 도전을 증명하는 책이기도 하며, 이 공장을 거쳐간 모든 노동자들에게 대한 경의를 표하는 책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 동안 직물시장은 필수적이었던 의류 생산용 직물에서 1950년대를 지나며 실내장식을 위한 직물로 옮겨갔다.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격자무늬 셔츠를 뒤로 하고, 우아한 줄무늬와 시대를 초월한 프린트 원단의 시대가 도래한 지 이미 오래다. 1980년대부터 리더십 강한 신세대 경영자로 꼽히는 그레고리와 라파엘 형제와 사촌인 미카엘 드니는 상점들을 현대화시켰고, 이곳에서 새로운 트렌드의 커튼과 블라인드 제품을 선보이며 고객에게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실내장식 및 인테리어 조연을 위해 기꺼이 고객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업장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정지된 듯하다. '트와이드 마옌'에서 일하는 장인들은 여전히 오래된 나무 손잡이의 파란색을 통해 샘플 원단임을 표시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입사하여 오랜 시



간을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감독 하에 실을 짜고 섬유에 염색을 한 것은 늘 이곳 현장에서 설계, 제조 및 수리되는 직조기와 기계들이었다. 단지 직물 직조 시 수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실패에 잘 감긴, 절반쯤 염색된' 실로 직물을 생산해내며, 일련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숙련된 조작에 의해 생산과정이 중단될 수 있게 변했을 뿐이다. 안전이라는 부분을 보장하였을 뿐, 전통방식을 고수하는 과정 자체가 품질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은 긴밀한 협력을 위해 디자이너가 고용되어 일을 하지만 과거에는 드니 가문의 이모와 그의 자매들이 새로운 형태의 직물을 창조하기 위해 이미지를 상상하고 모양을 만들어냈다. '트와이 드 마옌'의 대명사가 된 멋진 줄무늬 직물은 1950년대에 등장했지만, 결국 그 발로는 200년간 지속된 드니 가문의 역사에 있다.

모든 '제대로 염색된' 원단은 햇빛과 연속적인 세탁에 견디는 것은 물론 염소에 강하며 변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원단은 오염방지처리를 하고, 리넨은 잘 구겨지지 않도록 만든다. 덕분에 연간 15%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10년 동안 매출을 3배로 성장시켜왔다.

드니 가족은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100년 된 보리나무와 양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손수레에 롤러를 담아 공장에 가져가는 동안 창문을 넘어 들리는 피아노 협주곡을 통해 이곳에서는 여전히 삶과 일이 공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한편 <한 지방의 직물>을 통해 1975년 이후 일하고 있는 염색 책임자가 이곳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피크닉과 송어 낚시, 여름밤의 추억들도 엿볼 수 있다. S

에디터 김희성 글 아녜스 브누아(AGNES BENOIT) 사진 마크 부루사르(MARC BROUSSARD)

1 장 안에 쌓여 있는 원단 조각을 보면 이곳의 오랜 역사를 느낄 수 있다. 2 이곳의 모든 제작과정은 장부에 기입되어 있다. 3 양복 원단 및 작업복의 원단으로 쓰이는 면 플란넬.







이불의 작품세계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현대미술작가 이불의 대형 신작 프로젝트가 국립현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예술적인 감각과 사고를 통해 현대미술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가가 이번에는 또 어떤 화두를 제시할지 궁금하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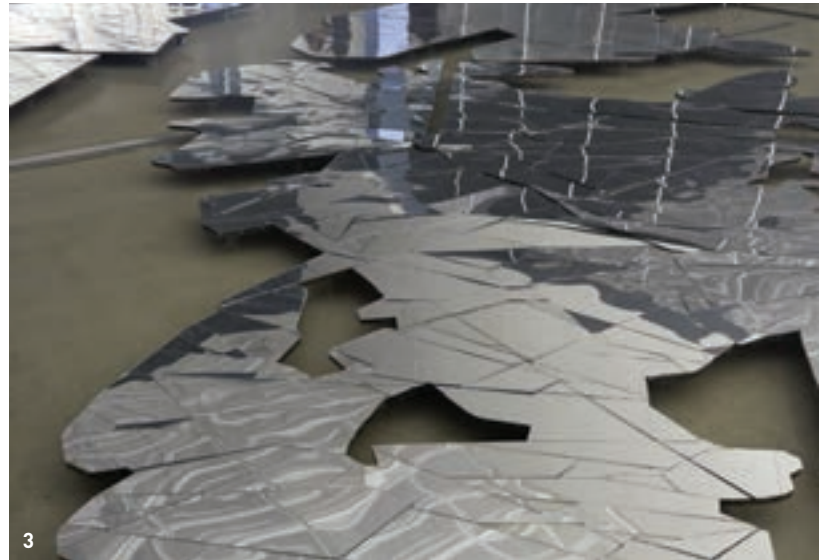


2

원래 조각은 광장의 중심에 높이 솟은 좌대 위의 위인이나 신의 몸이었다. 그것은 존경과 관심, 불멸과 영원성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하고 견고한 돌이나 청동으로 제작되었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시점에 자리하였다. 조각을 조각이게 하는 것은 그 좌대였다. 어떤 종류이든 조각을 받침대 위에 놓지 않으면 그 현존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반면 현대조각은 그러한 주술성을 벗어던진다. 이제 조각은 신이나 위인의 불멸할 몸이 아니라 그저 돌이나 나무, 청동이란 물질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일상적인 삶의 공간과 무관한 장소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현장 안으로 스스로없이 개입하고 스며들도록 허용되었다. 조각의 재료 역시 견고하고 영속적인 물질만이 아니라 부드럽고 연약한 재료나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재료도 기꺼이 사용된다. 동시에 기존의 건물이나 특정 공간에 잠시 서식하다가 사라지기를 거듭하기도 한다. 당연히 좌대는 사라진다. 이른바 ‘설치’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작업 방식이다. 오늘날 조각의 물질적 속성, 즉 공간 속에 존재하는 형태로서의 현존성은 가장 타당성이 희박한 조각의 특성이 되었다. 형태나 장소, 재료 등은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다른 측면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되고 있다. ‘무엇’이 아닌 ‘왜’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특정 조각 작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공간에 왜, 어떻게 놓이고 간섭하며 시선의 주목을, 감정의 파문을, 의식의 혼란을 야기하고 ‘사건’을 일으키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조각 작업은 ‘우리의 감수성에 최대한의 갈등’을 일으키고자 한다. 또한 전통적이며 경질의 조각 재료가 갖는 영구성을 대신해서 갖가지 재료들이 다채롭게 활용되며 그 재료 역시 가변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변화해 가도록 조율되어 있다. 그러한 작품들은 대부분 무엇보다도 소멸되어 간다는 점에서 생명의 주기를 닮아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이불의 전시는 작금의 현대 조각, 설치미술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두 개의 커다란 방에서 전시되고 있는 것은 흔히 미술작품이라고 부를 만한 것과는 사뭇 무관해 보인다. 거울과 조명, 인공의 재료들로 이루어진 작업은 거대한 규모로, 보는 이의 신체를 포용한다. 그곳은 무대, 환상적인 공간, 현실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비의적이고 신비스러우며 이상한 기운으로 가득한 장소다. 거울과 조명으로 이루어진 작업은 날카롭게 잘리고 튀어나온 부위를 조심스레 피해 나가면서 그 길 끝의 유토피아를 상징



1 세계가 주목하는 작가 이불의 전시장 입구. 2,3 태양의 도시 II(Civitas Solis II) 2014. 폴리카보네이트, 아크릴 거울, LED 조명, 전성, 330×3325×1850cm.

하는 불빛을 빔내고 있다. 또 다른 방에 설치된 작업은 거대한 비행기, 조류를 연상시키는 구조물이 수직으로 걸려 있고 전시장 천장에서는 짙은 안개가 피어오른다. 흡사 짙은 농무에 휩싸인 풍경 속에 문득 기이한 비행선을 목도하고 있는 환각을 안겨준다. 이렇게 전시공간에 물질을 연출해서 관객들에게 낯선 세계, 묘한 감각을 안겨주는 일을 설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설치작품을 만든 이불은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했지만 졸업 이후에 선보인 그녀의 작업은 기존의 조각과는 상관 없어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 수공예적인 기법을 통해 비닐, 천 등 가볍고 부드러운 재료나 여성적인 감수성이 묻어나는 재료를 다루면서 인형이나 기이한 형상을 지닌 것들이었다. 이후에는 퍼포먼스를 비롯해 생선과 몬스터, 만화 속의 로봇 이미지를 이용한 다양한 작업을 선보여왔다. 그녀가 초기에는 강렬한 페미니즘적 발언을 담은 작업을 통해 신랄하고 공격적이며 자학적인 냄새를 질게 풍겨왔다면 최근에는 현실, 문화, 생태 등의 다양한 주제를 녹여내고 있다. 지금 그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뉴욕현대미술관, 뉴뮤지엄, 구겐하임미술관, 베니스비엔날레, 퐁피두아트센터 등 유수의 해외미술관에서 전시를 개최하며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현대미술작가로 확



1,2,3 새벽의 노래 III(Aubade III) 2014, 알루미늄, 폴리카보네이트, 메탈라이즈드 필름, LED 조명, 전선, 스테인리스스틸, 포그 머신, 가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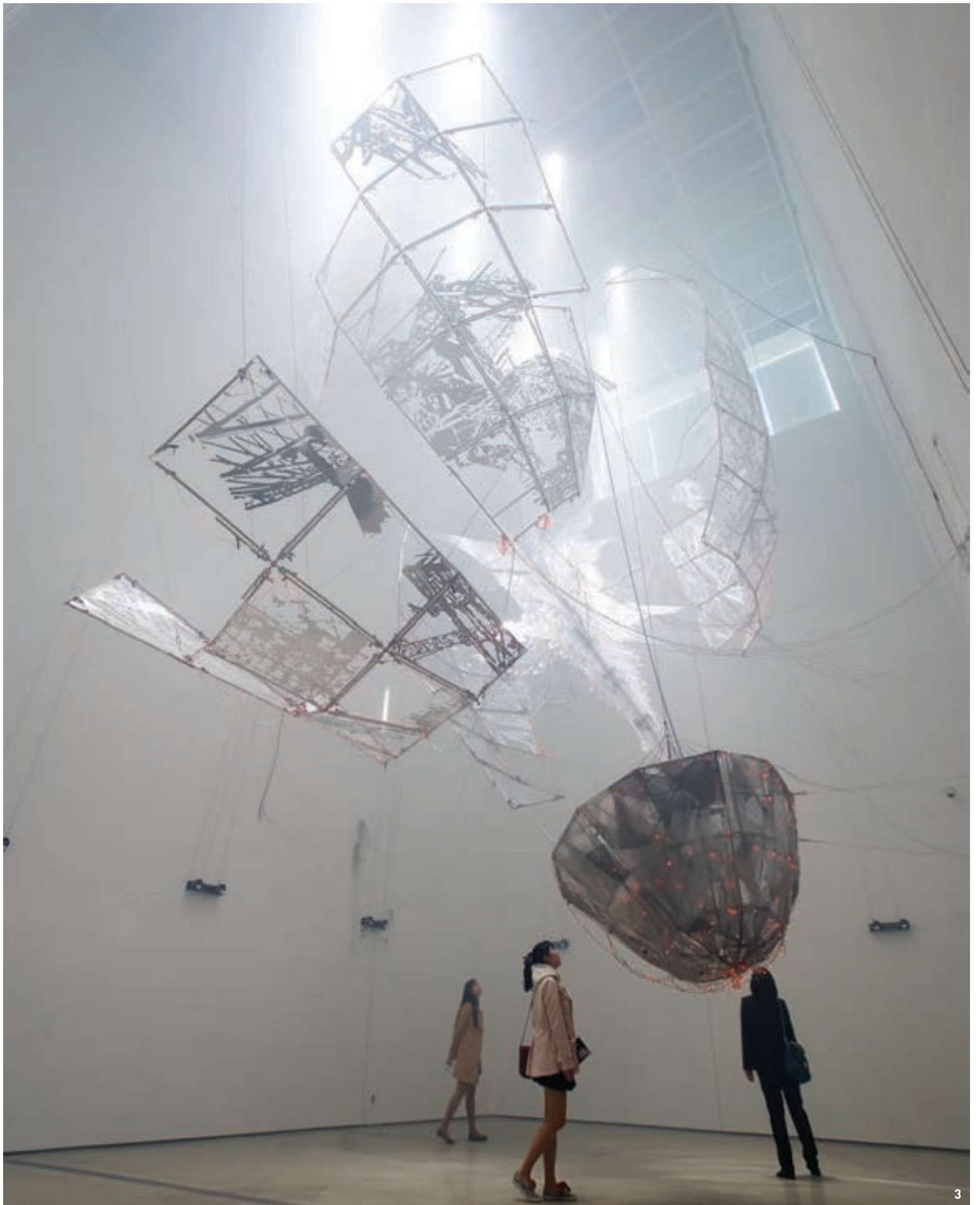
고히 자리매김하였다. 이미 1980년대 탁월한 예술적 감각과 사고를 통해 현대미술뿐 아니라, 사회라는 보편적인 맥락에 물음을 제기하고 탐구를 지속하였다. 이불은 1980년 작품 활동 초기부터 퍼포먼스, 설치, 조각 작업을 통해 아름다움, 파괴 등을 주제로 한 인습 타파적인 작업을 펼쳤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기계와 유기체의 하이브리드인 사이보그(Cyborg) 시리즈 작업으로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인류의 역사적 사건들과 결합시키고, 성찰과 비판의 시각을 제시하는 대규모 설치작업인 이른바 <나의 거대서사>라는 작품 시리즈를 지속해서 발표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2014: 이불>전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공개되는 2점의 대형 공간 설치작품은 <태양의 도시 II Civitas Solis II>와 <새벽의 노래 III Aubade III>로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해온 <나의 거대서사>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업이다.

<태양의 도시 II Civitas Solis II>는 길이 33m, 폭 18m, 높이 7m 규모로 대형 전시실의 사방 벽면과 바닥면 전체가 거울과 그 조각들의


굴절과 반사를 반영한 미로 형식의 공간 설치작품이다. 작품 상단에 부분적으로 설치된 전구들은 거울 면을 통해 형태가 반전되어 'Civitas Solis' 즉, 태양의 도시라는 단어를 표현하며 점멸을 반복한다. 거울 면들의 반사와 굴절로 무한히 확장되는 신비로운 공간 안에서 관객은 마치 미지의 시간과 공간을 탐험하듯, 각 개인의 내면과 상상의 세계로 들어서며 자아와 세계의 또 다른 만남과 사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좁고 불편한 통로, 그리고 깨진 거울의 날카로운 단면들이 보행자의 신체를 겨냥하고 있는 그 길을 위태롭게 걸어가도록 작가가 일부러 도해서 만든 작품이다. 태양의 도시, 유토피아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위험하기도 하며 자신이 가는 길이 그 길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도 깔려 있는 듯하다.

또 다른 작품인 <새벽의 노래 III Aubade III>는 독일 건축가 브루노 타우트(Bruno Taut)의 <새로운 법령을 위한 기념비 Monument des Neuen Gesetzes(1919)>와 20세기 초 <힌덴부르크 비행선> 등 모더니즘 상징물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를 서로 결합시켜 조명탑 구조로 발전시킨 형태라고 한다. 15m라는 상당히 높은 전시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직의 대형 설치작업을 선보이는데 그 규모만으로도 압도적이다. 유럽 중세 때 유행했던 연시(戀詩)에서 현대적 재해석까지 담은 작품명은 삶의 아름다움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필멸성 등을 담아 내며 의미와 성찰을 확장해 나가려는 의도 아래 구성되었다. 이 탑에는 점멸하는 LED 조명들과 전시실 전체를 주기적으로 분사해 채웠다가 사라지는 안개를 통해 시각적 효과까지 더했다. 수직의 탑과 공간에 스며든 빛과 안개는 드러냄과 사라짐을 통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생성하며 작품이 지니는 무게와 깊이를 더욱 완성도 있게 만들고 있다. 짙은 안개로 가득한 공간에서 문득 고래를 들어 거대한 비행선, 혹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와 조우하고 있다는 느낌, 그 신비스러운 체험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저 무겁고 흐린 안개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의 희망일까, 절망일까? 그렇다면 이불의 이번 두 개의 작품은 모두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현실의 삶에 대한 은유적 성격을 지니면서 앞으로 인간의 미래에 대한 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는 듯보인다. 기존의 조각과는 완전히 다른, 이른바 설치, 연극적 공간 연출, 테크놀로지와 신비스러운 기운 등을 결합시켜낸 작업을 통해서 말이다. S

에디터 김희성 글 박영택(경기대학교수, 미술평론가) 사진 이은숙 도움 주신 곳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02-3701-9500)







나무, 신경의 옷 벗고 생명을 얻는다

동네 어귀마다 서 있었던 장승. 그 기묘한 형태 안에 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을 듣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69호 이수자, 장승장이 김종홍 씨와 그의 뒤를 잇고 있는
아들 김주호 씨를 만나기 위해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갔다.



자고로 나무는 신령한 존재다. 사람으로 치면 몇 대를 거뜬히 살아내는 나무의 놀라운 생명력은 채 백수도 누리지 못하는 인간에겐 경외의 대상이다. 그러나 거목 혹은 고목 속에 범접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그런데 그런 나무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다분히 이중적이다. 경외의 대상을 서까래와 땀감으로 삼았으니 말이다. 그렇게 인류가 생산한 문명은 나무에게서 '신령의 옷'을 벗기고 '가구'의 옷만 입힌 지 오래다.

그런데 여기, 죽은 나무에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선사하고 있다고 자임하는 이가 있다. 장승장이 김종홍 씨(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 및 제108호 이수자). 하긴 그의 눈에 든 마른 나무는 수십 차례 끝을 맞고 나면, 부리부리한 눈에 몽툰한 코를 가진 장승으로 환생하니, 그의 말이 허튼 소리는 아니다. 그가 장승과 인연을 맺고 동지를 튼 곳은 안동 하회마을 초입이다. 그런데 나무를 대하는 인류의 태도가 이중적이듯 이곳 안동의 하회마을 또한 이중 구조를 가진 공간이다.

안동은 권문세도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장, 권, 김 씨' 세 가문을 배출한 고장이다. 게다가 안동을 대표하는 하회마을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자 서애 류성룡으로 대표되는 풍산 류 씨 가문의 세거지다. 즉 '양반'이란 한 단어로 설명이 가능한 곳이 안동이고, 하회마을이다. 그런데 안동과 하회마을을 상징하는 아이콘은 국보 제21호인 '하회탈'이지 않은가. 양반의 고장과 서민의 탈놀이가 공존하는 안동 하회마을은 그래서 이중 구조로 이뤄진 공간인 것이다.

이 하회마을 초입에 온갖 장승을 세워,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뺏는 이가 바로 장승장이 김종홍 씨다. 그는 어쩌다 백발을 치렁치렁 기르고 손마디가 뒤둥그러질 때까지 장승을 깎고 또 깎았던 걸까?

“어릴 때부터 손이 닿는 대로 뭘 만들길 즐겼죠. 하라는 공부는 일찌감치 작파하고 그렇게 지냈으니, 어느 아버지들 반겼을까요. 하지만 나무를 만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좋은 걸 어쩔니까? 그렇게 어찌어찌 해서 장승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죠.”

단칼에 장승을 깎듯, 장승의 생김새가 소탈하듯 그의 어투는 솔직함을 넘어 거침이 없었다. 하회마을 고개 넘어 중리에 살던 그가 하회마을 초입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장승을 세우기 시작한 건 1990년대 들어서야의 일이다. 그전까지 그는 작은 점방을 운영하며 소싯적 소질을 살려 분재와 목공예를 했다. 말이 그렇지만 어디 살림에 관심인들 있었겠는가. 부모님의 지청구가 아내의 그것으로 바뀐 세월을 살았을 것이다.

손재주 탓에 한때 이발사를 하기도 했던 그는 “이발을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공짜로 관찰했던 것이 장승을 만들 때 도움이 됐다”고 했다. 하긴 장승치고 같은 생김새가 있던가. 눈코입이 야 한자리에 붙어 있지만 장승의 얼굴은 하나같이 다르다. 그건 정형성이 없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나무 다루는 솜씨 좀 있다는 사람이 만들던 풍찬노숙 신세의 장승을 만드는데, 법도가 따로 있었을 리 없었는가. 하지만 바로 그런 무정형성이 장승의 미학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다.

장승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이정표이자 흥사를 막아주는 액막이 등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민간신앙의 산물인 장승의 얼굴은 왜 그렇게 생겼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타당한

“장승의 조형성을 인정해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다양한 형식의
공예품으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믿으니까요.”

1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등장하는 부네탈을 장승에 접목시킨 건 하회마을 사람인 그만 이 할 수 있는 조합이 아니었을까. 2 손때 잔뜩 묻은 나무망치와 끝은 그와 나무가 만나는 유일한 접점이자, 장승의 탄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다. 3 장승을 아끼고 전승하려는 강한 믿음은 아버지의 백발에서 이들의 검은머리로 이어지고 있다. 4 장승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 그런 무정형성과 소탈한 조형미가 장승의 매력이다.

이유가 있다. 고리처럼 생긴 큰 눈은 귀신을 물리치려는 척사의 의미가 내포돼 있고, 우람한 코에는 다산과 풍요의 기원이 담겨 있다. 또한 나무의 뿌리 부분을 머리로 삼는다든지, 입 모양을 비뚤게 한다든지 하는 건 상식을 깬 파격이다. 파격을 통해 척사를 기원했을 것이다. 그런 탓에 자칫 밤길에 장승과 마주한다면 섬뜩해질 수 있지만, 상식을 깬 그런 조형미야말로 장승의 참맛이 아닐 수 없다. 김종홍 씨가 장승에 빠진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아버지야 '팔자'라고 탓하면 그만이지만 아들 김주호 씨는 왜 그 고된 길을 따르려고 하는 것일까?

“전통문화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 삶의 길이 정해진 셈이죠. 경제적 어려움과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과 몰이해 때문에 힘든 게 사실이지만, 진로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안동대 민속학과에 진학한 김주호 씨는 대학원 재학 당시 <장승장이의 출현에 따른 장승의 의미 변화>란 논문을 통해 아버지의 삶을 ‘오마주’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장승의 의미 변화는 어떤 것일까?

“장승의 전통적 기능은 이미 약화 내지 퇴화 되었지만, 하나의 트레이드마크로써 기능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변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장승의 조형성을 인정해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다양한 형식의 공예품으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믿으니까요. 물론 현실적 제약이나 한계가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요.”

그는 어릴 적 꼭두새벽부터 선잠을 깨워 무거운 나무를 지게 하신 아버지가 밧기도 했지만 “그런 부지런함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장승’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했다.

학문으로 ‘근육’을 키운 든든한 아들들 둔 김종홍 씨가 몰두하는 건 비단 장승만이 아니다. 그는 하회마을로 이주하면서부터 하회별신탈굿놀이에 뛰어들어 중탈을 쓰고 공연에 나서고 있다.

“하회마을 주민으로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건 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들 타지에 사시는 분들이죠. 상설 공연 횟수가 늘어나 바빠지긴 했지만 워낙 관객들의 반응이 좋아 고생보다 보람이 큼니다.”

그의 수많은 장승들 중엔 하회탈에 등장하는 부네탈이나 양반탈의 얼굴을 한 장승들이 있다. 요즘 말로 하자면, 하회탈과 장승의 콜라보레이션인 셈이다. 하지만 그는 객석을 채운 관객들의 다양한 표정을 보며, 새로 세울 장승의 표정을 구상하는지 모른다. 분재를 하면서 죽은 나무가 아까워 장승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김종홍 씨. 하회탈 속에 숨어 살핀 관객의 표정을 장승에 새기는 그는 참 타고난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다.

나무는 살아 있는 동안 사연 하나씩을 품고 살다 생을 마감한다. 김종홍 씨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화목이 될 처지에 놓인 나무에 또 다른 사연을 심는다. 그러니 그는 나무망치와 끌로 조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연을 생산하고 연장하는 색다른 의미의 이야기꾼인지도 모른다. S

에디터 김희성 글 최태원 사진 이종근 캘리그래피 이규복

1 장인의 애정 어린 손길이 지나가면, 죽어 누웠던 나무가 생명을 얻고 다시 머리에 하늘을 이게 된다. 2 토속신앙의 잔재란 미명 아래 사라졌던 장승의 적극적 복원은 한국적 아이콘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네 나무 장승은 비바람에 훼손되면, 솜씨 좋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다시 세워지곤 했다. 그리고 그 제작과정엔 동네 어른들의 조언과 참견이 뒤따랐다. 4 김주호 씨는 자신만의 태도와 방식으로 아버지의 정신을 잇고 있는 한국 장승의 미래다.



1



2



3



4

藥指로 짚어 허끝에 달으니
격이 다른 단맛이로세



피부를 보하여 기운이 차오르니

사계절을 아우르며 우리의 미감을 즐겁게 하지만 겨울철이면
배가 되는 꿀과 콩의 영특한 재능은 신비롭게 여겨지리만큼 넓고 깊다.

푸드 아트 이종국 어시스턴트 최은미, 윤현석, 김명수 사진 이종근 에디터 권지애



겹겹이 만든 집청 약과

검붉은 빛 속에 五臟을 보하는 달콤함이 숨어 있구나





콩가루 묻힌 송기떡

고소한 食感이 입 안에 퍼지니 그날이 잔칫날이로써



콩 한 톨의 힘

색색이 고운 빛깔로 五臟을 두루 살피니

격이 다른 단맛, 꿀

달다 해서 다 똑같은 단맛이 아니다. 한 손가락 떠먹는 것만으로도 보약이 되는 것이 꿀이니 다른 단맛과는 품격 자체가 다르다. 미네랄은 물론이요 비타민, B를 비롯해 피부 회복에 필요한 각종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살균력과 항염 효과도 탁월해 뽀루지나 염증이 있을 때 바르면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다.

Not all things sweet taste the same. Honey is a tonic that has a unique sweetness. It contains minerals, vitamin B, and various other nutrients that are essential for skin restoration. It keeps the skin moist and has outstanding sterilization and inflammatory effects.

겹겹이 만든 집청 약과

석청은 석벽이 깊은 산속의 절벽이나 바위틈에 모아둔 꿀을 채취한 것으로 향이 진하고 달지만 살짝 쓴맛이 남는다.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두통, 변비, 혈액순환 장애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집청 역시 단맛을 내기 위해 예부터 즐겨 사용하던 재료로 옛을 고다가 불을 꺼 완전히 졸이지 않은 것으로, 점도에 따라서 묽은 집청, 된 집청 등으로 나뉜다.

Seokcheong, which is collected from cliffs deep in mountains or rock crevices, has a strong scent and sweetness, and a slightly bitter aftertaste. It is known to be effective for atopic dermatitis, headache, constipation, and blood circulation disorder. Jibcheong was a popular food sweetener in history.

콩가루 묻힌 송기떡

멥쌀가루에 송기가루를 넣고 찌 안반에 친 떡이다. 소나무의 속껍질인 송기를 잿물로 삶아 우려낸 다음 절구에 찧어서 만드는데 만드는 방법과 모양에 따라 송편, 절편, 개피떡 등이 된다. 인절미보다 더 쫄깃쫄깃하고 솔향기가 짙게 감도는 맛이 일품이며 콩가루를 묻혀 먹으면 고소한 맛이 극대화 된다.

This is made by steaming the combination of non-glutinous rice powder and songgi powder, and pounding it on an anban (a pounding board for making rice cake). Songgi is boiled in lye, brewed, and then pounded in a mortar. It is chewier than injeolmi (rice cake made from glutinous rice and coated with bean flour) and has a strong pine scent. Sprinkle it with bean flour to maximize its flavor.



콩 한 톨의 힘

콩은 비타민과 더불어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노란콩이라 불리는 대두는 오장을 보해 주고 검은콩은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꾸준히 먹으면 피부가 맑아지고 탄력이 생긴다. 녹두는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 기미, 주근깨에 좋다. Beans, a health remedy for elderly people worldwide, contain abundant vitamins and protein. Soybeans, also called yellow beans, protect the five viscera, boost the circulation of the meridian system, and warm the bowel and stomach. Black beans, with their excellent antioxidant, anthocyanin, brighten and firm up the skin if it is steadily consumed.

설화수로 꽃피운 조화의 아름다움

속 깊은 내면의 정갈함으로 시작된 아름다움은 외면에서 절정의 꽃을 피운다.
내외면의 균형 잡힌 기품 있는 미를 위한 설화수의 제품들을 소개한다.



윤조지향

First Peace Candle

눈을 감고 있으면 향기와 더불어 마음속에 고요함이 피어오른다. 피로 피로와 스트레스는 물론 흐트러져 있던 심신의 조화를 다스려 평온함을 주는 한방 홀리스틱 향초, 마음을 청명하게 깨워주는 솔향과 피부기운을 북돋워주는 유향, 차분하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광향과 정향으로 홀리스티뷰티를 선사한다.

동백윤모오일

Camellia Hair Oil

피부를 보듯 손으로 부드럽게 보듬고 감싸 주니 윤기와 생동감이 머리 전체로 넘쳐 흐른다. 제주 동백 마을에서 재배되는 동백을 원료로 만든 한방 헤어 오일로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발려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한다. 옛 유병을 재해석한 감각적인 디자인 또한 일품이다.





실란 메이크업

Shine Classic Make-Up

눈부시게 빛나는 자개는 공예가 이현경 작가의 현대적인 감각을 통해 더욱 아름답고 정교한 매화꽃 외형으로 탄생되었고 내용물에도 매화 문양을 새겨 다색의 꽃을 피운다. 전통 자개를 이용한 감각적인 디자인과 장인 정신으로 탄생한 실란 메이크업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더욱 귀하게 선보인다.



작은 진주패 조각들을 부착하여 한 송이의 만개한 매화꽃을 커버 위로 옮겨놓은 작품성 깊은 실란 메이크업은 콤팩트, 컬러팩트 두 가지로 선보인다. 실란 콤팩트는 내추럴 베이지 컬러를 바탕에 칠한 용기 위에 배면에 흰색 칠을 한 진주패를 부착하였다. 하이라이터 기능의 실란 컬러팩트는 중앙의 매화를 제외한 가장자리에 검정색 칠을 하고 전체에 백진주패를 붙여 투명한 자개 밑에서 오묘한 빛이 새어나오도록 디자인하였다.

에디터 권자애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 도움 주신 곳 박지윤 작가의 <월매도>

자연에서 찾은 인간의 이상향, 사군자

고초에 맞서 절개를 지키는 사람을 일컬어 군자라 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곧은 생명력을 보여주는 식물을 가리켜 사군자라 한다. 매난국죽! 매화의 '이치고절'과 난초의 '외유내강', 국화의 '오상고절', 대나무의 '세한고절'은 옛 선비들이 화폭에 담고자 했던 사군자의 화품이었다. 또한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군자의 덕목이기도 했다.

난을 치는 법은 역시
예서 쓰는 법과 가까우니
반드시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書卷氣)기 있는
연후라야 얻을 수 있다. 또
난을 치는 법은 화법을 가장
꺼리니 만약 한 붓질이라도
화법이 있다면 그리지 않는
것이 좋다.

흐드러진 매화 속에서 책을 벗하다

매화는 눈 속에서 꽃망울을 터뜨려 그 향기를 찬바람에 실어 보낸다. 매화 사랑이 각별했던 조선의 선비들은 초겨울에 일찌감치 '구구소한도'를 그려놓고 봄이 오길 기다렸다. 큰 종이에 아흔아홉 송이의 매화를 그려놓고 동짓날부터 하루 한 송이씩 붉은 색을 칠하다 보면 마지막 매화가 붉게 변할 때쯤 계절이 춘분으로 바뀌는 것이다. 묵향에 깃든 매향, 혹은 매향에 깃든 묵향! 그들이 꿈꾸던 매우(梅雨) 훔날리는 봄날을 생생하게 표현한 그림이 있다. 조희룡의 <매화서옥도>가 그것이다.

눈송이 같은 매화가 꿈결처럼 흐드러진 산속의 작은 서옥,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선비의 모습이 창 너머로 들여다 보인다. 검박하다 못해 초라한 한 칸 초가임에도 더없는 호사를 누리는 듯보이는 건 무수한 꽃송이들이 자아내는 몽환적인 분위기 때문이리라. 선비가 응시하고 있는 것은 작은 술병에 꽂혀 있는 일지매. 멀리 솟아 있는 거대한 산봉우리들은 번잡한 속세로부터 서옥을 지켜주는 울타리처럼 보인다.

그림 위쪽의 글에는 '20년 전 그렸던 그림을 찾아 그 위에 쓴다'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장장 20년에 걸쳐 완성된 셈이다. 귀양 기간에도 매일 두어 점씩 매화를 그리며 고절한 삶을 꿈꾸던 문사. 침소 주위에 매화 병풍을 두른 것으로도 모자라 거처의 이름까지 '매화백영루'라 할 만큼 매화를 사랑했던 그에게 매화서옥은 단순한 그림의 소재가 아닌 일종의 이상향이 아니었을까.

텅 빈 듯 가득 찬 난초와 국화

추사 김정희는 흔히 서예의 대가로만 기억되지만 글씨 못지않게 탁월했던 건 그의 그림, 그중에서도 특히 묵란(墨蘭)이다. 그가 난을 칠 때 가장 강조했던 건 화법이 아닌 필법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림 그리는 법을 피하고 서예적 법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난을 치는 법은 역시 예서 쓰는 법과 가까우니 반드시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書卷氣)기 있는 연후라야 얻을 수 있다. 또 난을 치는 법은 화법을 가장 꺼리니 만약 한 붓질이라도 화법이 있다면 그리지 않는 것이 좋다.' (1848년 제주 유배 당시의 편지)



<매화서옥도>

조희룡. 종이에 엮은 채색, 130.0×32.0cm,
국립중앙박물관



<죽도>

이정. 비단에 먹, 119.1×57.3cm,
국립중앙박물관



<난국도>

김정희 종이에 먹, 37.0×27.0cm,
국립중앙박물관

사군자 중 난초와 국화를 한 화폭에 담은 그의 <난국도>를 보면 ‘글씨 쓰듯 그리는 난초’가 뭘 뜻하는 지 어렵듯이 알 것도 같다. 길고 날렵하게 뻗어나간 난초의 우아한 획,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정연한 국화 꽃잎의 조화. 현실의 대상을 모사했다기보다는 마음속에서 기르고 걸러낸 사군자의 결정체만을 최소한의 붓질로 옮겨낸 듯하다. 텅 빈 듯하면서도 가득 찬 저 화폭의 섬세한 조형감과 절묘한 공간감을 보면 그가 왜 조선 예원의 마지막 대가로 꼽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꽃꽂한 대나무, 부드러운 댓잎

‘솔이 대에게 말하길 / 눈보라 몰아쳐 산골 가득해도 / 난 강직하게 머리 들고서 /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히지는 않는다오 // 대가 솔에게 답하길 / 고고할수록 부러지기 쉬운 법 / 난 청춘의 푸르름 고이 지킬 따름 / 머리 숙여 눈보라에 몸을 맡긴다네.’

조선 중기의 문신 이식(李植)이 쓴 <송죽문답(松竹問答)>이다. 수직으로 곧게 자라며 겨울에도 푸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는 수많은 그림에 등장하지만 그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묵죽(墨竹)의 대가는 조선 중기의 화가 이정. 그의 그림 속엔 바람에 댓잎 휘날리는 풍죽, 빗속에서 댓잎이 치진 우죽 등 다양한 대나무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소개하는 <죽도>는 우죽이다.

우죽이라 해서 힘없이 늘어진 게 아니다. 꽃꽂함 속의 유연함이랄까. 댓잎이 아래를 향하는 데도 오히려 힘찬 형세가 느껴지는 묵죽! 바로 그 점이 그가 대가로 꼽히는 이유다. 앞의 대나무는 중묵, 뒤쪽의 대나무는 담묵으로 처리하여 명암의 대비를 이루는데, 이는 이정의 그림들 속에 종종 등장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죽기 직전인 81세 때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이 그림은 아마도 그가 평생 닦아온 기량의 절정이자 결정체가 아니었을까. S

에디터 김희성 글 박경수 도움 주신 곳 국립중앙박물관

미색보감



윤기를 되돌려 피부를 보하라

차가운 바람과 낮은 습도가 피부를 예민하게 만드는 겨울, 사소한 자극에도 피부는 쉽게 지친다. 지친 피부는 윤기를 잃고 노화를 재촉할지니 서둘러 윤택한 피부로 되돌리라. 자음생에 옳은 답이 있다.



겨울 앞에서 서면 부쩍 푸석푸석해진 피부가 눈에 들어오는 요즘이다. 거칠거칠한 피부 감촉에 놀라기도 한다. 실내외 온도 차가 심한 겨울이면 기초를 꼼꼼히 바르는 것만으로는 피부 밸런스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 옛 여인들도 겨울이면 피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스페셜 케어를 했다. <규합총서>에 소개된 미용법 중 '면지법'은 달걀과 술을 향아리에 일정 시간 봉한 뒤 피부에 바르던 미용법인데, 이를 통해 거칠어진 피부를 윤지고 옥같이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칙칙해진 안색과 메마른 피부 촉감이 느껴지는 겨울이면, 윤기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설화수 스파의 윤기회복 프로그램은 피부 전반의 윤기를 되살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 열 관리를 통해 충분히 확장된 피부에 전해지는 금박 트리트먼트는 피부에 영양 공급 및 안색을 맑게 하며, 탄력 앰플을 더한 섬세한 러빙은 탄력을 잃은 피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윤택함을 더욱 보필하기 위해 마무리 케어는 '자음생 라인'으로 진행된다. 진생베리가 지닌 풍부한 영양이 피부를 보호하고 젊은 피부로 가꿔주는 자음생크림 외에도 피부를 탄탄하게 받쳐줘 주름 고민을 덜어주는 인삼 캡슐 에센스, 자여진에센스까지 고루 사용하는 마무리 케어를 통해 인삼과학이 피부에 전하는 윤기와 탄력을 고스란히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피부에 올라오는 윤광을 느껴보기에 필요한 시간은 딱 1시간 50분이다. S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은숙 **도움 주신 곳** 설화수 스파(롯데호텔 서울점 02-318-6121)

* 설화수 스파는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과 가치를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롯데백화점 잠실점(4층)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의 02-411-0262

롯데호텔 서울점 운영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문의 02-318-6121



피부에 효능 깊은 영양을 제공하는 자음생 크림과 처진 주름을 차올리며 탄력을 주는 자여진에센스

All you see in front of the mirror these days is the roughness of your skin. When there is a big temperature gap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of your skin, meticulous basic skincare is not enough to keep your skin balanced. The traditional women of Korea applied special care to resolve skincare concerns in winter. This method was used to restore the radiance and smoothness of rough skin. It always takes special efforts to restore the radiance of skin that looks dull and feels dry in winter.

Sulwhasoo SPA's Radiance Program helps you restore the overall radiance of your skin even with just one session. The gold film therapy on skin whose pores have been opened through heat treatment discharges the impurities that are hiding deep in the skin to clear up the complexion, and the gentle rubbing massage with the firming ampoule helps restore the resilience of drooping and sagging skin. The finishing care to enhance the skin's radiance applies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uses the Ginseng Capsule Serum and the Capsulized Ginseng Fortifying Serum to firm up the skin for wrinkle correction, in addition to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to richly nourish the skin and make it youthful through ginseng berries. You must experience the radiance and resilience that comes from ginseng science. It takes an hour and 50 minutes to feel the radiant glow on your skin from deep within.

한 살 더 어린 피부로 보필하라

연말이 되면, 부쩍 초조해진다. 시간을 부여잡고 싶지만, 나이가 한 살 더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피부를 가꾸어 피부 나이를 머무르게 할 수는 있다. 옛 여인들에게서 배우는 탱글탱글 어린 피부로 보필하는 비책을 소개한다.



〈규합총서〉나 〈증정현토산림경제〉, 〈동의보감〉 등 옛 선조들의 생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용 고서들을 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몸의 활력과 젊은 생기를 지키는 비법이 유독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비법의 말미에는 ‘꾸준히, 천천히, 자연스럽게’ 행동하라는 조언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젊은 생기를 지키자면 ‘정성스러움’이 필요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옛 여인들의 미용법 역시 몇 번 따라 한다고 화용월모(花容月貌)가 되고, 설부화용(雪膚花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게 만든 자연 재료로 정성스럽게 피부를 섬긴다면 내외면의 균형을 잡고, 젊은 피부로 가꿀 수 있다.

쉽게 나이 들지 않는 피부는 만져보았을 때 촉촉함과 탄탄한 탄력감을 느낄 수 있다.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여인의 피부는 매끄럽고, 은은한 광택이 살아 있으며, 얼굴의 윤곽이 무너지지 않아 또렷함이 살아 있다. 우리는 그런 여인을 가리켜 ‘동안 미녀’라 부른다.

조선시대 동안 미녀로 손꼽히던 이는 숙종의 애중을 받았던 장옥정이다. 그녀의 동안 비법은 바로 콩이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덕무는 “세수할 때 입과 코로 소리가 나게 하지 말고 물을 자리에 뿌리지 말고 물을 벽에 튀기지 말고, 얼굴 다듬기를 더디게 하지 말 것이다”라며 세안은 피부 표면만을 씻는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 맑게 하는 의식임을 강조했다.

옥정은 날콩가루를 사용해 꼼꼼하게 세안하는 것으로 탱탱한 피부를 유지했고, 숙종을 맞이할 마음을 경갈히 했다. 실제로 날콩가루와 물이 만나면 차지고 흰 거품이 발생한다. 이는 콩에 들어 있는 사포닌 성분 때문이다. 그리스어로 사포닌은 ‘거품이 일게 한다’는 뜻이다. 사포닌이 풍부한 콩은 세정력뿐만 아니라 인체에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과산화지질은 피부의 보습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자 잡티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날콩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두었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세안이나 목욕 시 부드럽게 리빙하는 딥클렌징을 즐겨 한다면, 피부를 맑게 하고 촉촉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옥정과 숙종은 검은콩을 즐겨 먹었다고 전해진다. 검은콩의 껍질에 들어 있는 안토시아닌은 ‘피부 코르셋’이라는 애칭이 붙은 콜라겐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후대의 과학이 밝혀낸, 콩이 피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옥정의 동안은 콩으로 씻고, 콩을 먹음으로 얻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검은콩은 해독작용이 탁월하여 부종을 내리고 혈맥이 막힌 것을 잘 통하게 한다’ 하였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내 노폐물이 쌓여 혈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기는 비만이나 부기 등도 잡아줄 수 있는 검은콩을 즐겨 먹은 옥정은 필시, 가녀린 실루엣도 유지하지 않았을까.

나이를 역행하고 싶다면, 풍성하고 윤나는 헤어스타일 또한 필수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의 수분이 빠지고, 영양이 고루 전해지지 않아 숫자가 줄어들고 푸석해진다. 두피와 머리카락이 건강하지 않으면 젊은 헤어스타일을 완성하기 어렵다. 옳은 해법을 얻고 싶다면 옛 여인들이 매일 아침 머리를 가다듬을 때 사용했던 동백유에 주목하자. 사실, 머리의 정갈함은 정신세계를 가다듬는 것과 더불어 뒷모습까지 아름답게 하겠다는 차원이 다른 미를 추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사대부가의 귀부인들은 귀한 동백유를 풀솜에 적셔 머리에 발랐는데, 비타민 A, B, E가 풍부한 동백유는 머리카락의 윤기와 두피 보습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은 어찌 보면 여인에게서는 가혹한 보탬이다. 그러나 옛 여인의 미용법에 흔히 등장하는 콩과 동백유를 정성스럽게 활용한다면 한 살쯤 더 어려 보이게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S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 도움 주신 곳 공예문화진흥원(02-398-7900)

| 공연 |

전 세계 최초 라이선스 초연 뮤지컬 <킹키부츠>

2013년 토니 어워즈 6관왕에 빛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킹키부츠>가 전 세계 라이선스 초연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에디터 김희성



연말은 '뮤지컬 관람' 시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뮤지컬 대작들이 속속 막을 올린다. 그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뮤지컬이 <킹키부츠(Kinky Boots)>다. 2013년 토니 어워즈 작품상, 음악상 등 6관왕에 오른 작품으로 현재 미국 브로드웨이를 비롯한 주요 30개 도시 투어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핫한 공연이다.

지난 3월 연출, 음악감독, 안무가 등 해외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내한하여 3차에 걸쳐 심사숙고해 결정된 한국 무대에는 작품의 완성도와 캐릭터 소화력이 강한 실력파 배우들로 대거 캐스팅되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찰리 프라이스' 역에는 뮤지컬 톱배우 김무열과 배우 윤소호가 캐스팅되었다. 뮤지컬과 영화를 넘나들며 한창 주기가 높은 김무열의 뮤지컬 무대 복귀작으로도 화제다. 편견과 억압에 맞서는 유쾌한 남자 '롤라' 역에는 뮤지컬계의 전설 오만석과 폭발적인 소울 감성과 표현력을 가진 강홍석이 맡았다. 배우 오만석은 철저한 작품 분석을 통해 '롤라' 역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는 후문. 이 외에도 '롤라'의 천적 '돈' 역에는 배우 고창석이 캐스팅되는 등 화려한 주역들의 공개로 예매 열기가 뜨겁다. 뮤지컬 <킹키부츠>는 한국이 만든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스토리와 스케일이 남다른 무대 장치와 의상, 신디 로퍼의 어깨를 들썩이는 팝과 디스코 음악이 어우러진 웰메이드 작품이다.

일시 12월 5일~2015년 2월 22일 **장소** 충무아트홀 대극장 **문의** 02-371-6359 **관람료**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해학과 풍자에 우리 가락이 어우러져 공연 때마다 관객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던 손진책 연출의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가 연말연시를 맞아 다시 올려진다. 이번 공연에는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이자 마당놀이의 대표 스타

김성녀가 출연하여 기대를 모은다. **일시** 12월 29일~2015년 1월 2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문의** 02-2280-4114 **관람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A석 3만원

뮤지컬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쟁이>



'마법에 걸린 연극', '어른을 울린 어린이극'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표 연극으로 자리 잡은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쟁이>가 보다 객석과 가까워진 무대로 찾아

왔다. **일시** 2015년 1월 11일까지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 **문의** 1588-5211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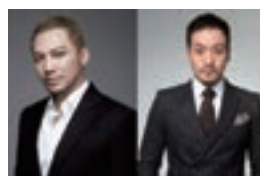
음악극 <두결혼장>



퀴어영화 사상 관객 5만 명 이상을 돌파했으며, 웹툰으로까지 인기몰이를 한 김조광수의 영화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이 음악극으로 재탄생했다. 소수자에 관한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며 공감을 얻고 있다.

일시 11월 30일까지 **장소** DFC 대명문화공장 2관 라이프웨이홀 **문의** 02-391-8222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천원

연극 <맨 프럼 어스>



1만 4000년을 살아온 남자, '존 올드맨'이 자신의 불멸의 삶을 스스로 밝히며 시작된다. 불멸에 관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논리 정연한 가설과 기발한 상상력이 더해지며 관객 모두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다. **일시** 11월

7일~2015년 2월 22일 **장소** 대학로 유니플렉스 2관 **문의** 02-744-7661 **관람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클래식 한류 열풍의 주역 첼리스트 송영훈 리사이틀 2014

완벽한 기교와 따뜻한 감성을 겸비한 한국 최고의 첼리스트 송영훈이 오는 11월 30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올해 정규 리사이틀을 갖는다.



2013년 3년 만의 리사이틀을 일본과 연결하여 한일 리사이틀 투어로 성황리에 마치며 한국과 일본을 클래식 음악으로 소통시키고자 노력했던 첼리스트 송영훈은 올해 상반기에도 후쿠오카 등 일본 네 개 지역에서의 솔로 리사이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반기에는 세계적인 거장 정명훈과 그가 이끄는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다시 한 번 일본 투어로 나섰으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클래식 한류 열풍의 주역임을 증명하였다. 그는 정통 클래식 대중들이 접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새로운 감동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3년 리사이틀에서는 일본 전통 악기의 소리를 재현한 '분라쿠(Bunraku)'나 아나체의 'Pohadka 동화'와 같은 독특한 곡들을 레퍼토리로 선정하였다. 올해는 '스페인 가곡 모음', 드뷔시의 '첼로 소나타 d단조'에 이어 프랑크의 '첼로 소나타 A장조'를 클라이맥스로 연주할 예정이다.

훌륭한 곡들이 대중 친화적 성향의 기획 때문에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의 소신이 담겨 있다. 타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 라디오 DJ, 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의 진행자 등으로 활동하며 대중과 음악 사이를 연결하는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 그의 연주를 <첼리스트 송영훈 리사이틀 2014>를 통해 확인해 보자.

일시 11월 30일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문의** 02-2658-3546 **관람료** R석 11만원, S석 6만 6천원, S석 4만 4천원, A석 2만 2천원

북 콘서트 <하루키의 순례를 떠난 해>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속 클래식 음악과 지휘자 안두현이, 미야자키 히야오의 애니메이션 OST의 감성을 새로운 감각으로 편곡했다.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일시** 12월 6일 **장소**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 **문의** 02-2658-3546 **관람료** R석 4만 4천원, S석 3만 3천원

<2014 막심 므라비차 내한 공연 IN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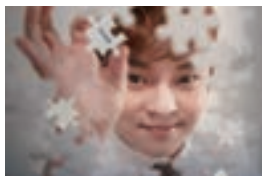
격정적인 연주와 다이내믹한 속주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2014 막심 므라비차 내한 공연'에는 4인조 스트링, 베이스, 드럼, 퍼커션으로 구성된 밴드와 함께 클래식부터 OST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일시** 11월 5~6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문의** 02-568-8831 **관람료** VIP석 13만 2천원, R석 11만원, S석 9만 9천원, A석 7만 7천원

<윤종신 예술대상>



<윤종신 예술대상>은 가수이자 작곡가, 월간 윤종신의 제작자인 윤종신의 모든 것이 담긴 연말 콘서트. 그와 함께 작업을 한 많은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여 한 시대의 감수성을 대변했던 그만의 독창적인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일시** 12월 2~13일 **장소**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문의** 02-549-5520 **관람료** VIP석 13만 2천원, R석 11만원, S석 9만 9천원, A석 7만 7천원

최현우 매직 콘서트 <The Brain>



마술에 심리학을 더한 신개념 마술 '멘탈 매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최현우가 세계 팬들을 열광시킨 최신 매직쇼를 국내에 올린다. 착시 효과를 이용한 옵티컬 마술, 예언 마술 외에도 최신 장비를 동원한 대형 마술쇼도 준비하고 있다. **일시** 11월 8일~2015년 1월 4일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문의** 1577-3363 **관람료** R석 8만 8천원, S석 7만 7천원

디지털 작품으로 만나는 반 고흐 : 10년의 기록展

근접한 디지털 이미지 작업을 통해 반 고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반 고흐: 10년의 기록展(VAN GOGH : A Record of 10 years)'을 소개한다.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강렬한 색채, 거친 붓 놀림, 뚜렷한 윤곽과 형태를 통해 현대미술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작품을 디지털로 만나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다. <활짝 핀 아몬드 나무>, <까마귀가 나는 밀밭> 등 반 고흐의 마스터피스들 비롯해 그동안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300여 점의 화화가 한자리에 소개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의 평면적인 전시와는 달리 70여 대의 Full HD급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4m가 넘는 대형 스크린 곳곳에 모션그래픽 작업으로 완성된 회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 대형 스크린은 물론 기동과 심지어 바닥을 통해서도 노출되는 반 고흐의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작품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의 손을 잡은 관람객이 많은 이유 또한 첨단기기와 전설적인 작품이 만나 신예술을 탄생시켰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더불어 배우 고현정, 야구선수 이대호, MBC 배현진 아나운서 등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이 본인들의 개성에 맞게 제작한 반 고흐의 흉상들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그의 전통적인 회화와 첨단 기술력이 어우러진 신선한 체험을 통해 반 고흐의 깊은 내면으로 끌려들어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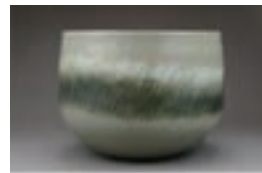
일시 2015년 2월 8일까지 **장소** 용산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 **문의** 1661-0207 **관람료** 성인 1만 5천원, 학생 1만 2천원, 아동(36개월 ~ 유치원생) 8천원

Me and You in a Living Room : <리카 재단상 수상 작가전>



프랑스 리카 재단의 수상을 통해 퐁피두 미술관에 소장된 미르세아 캉뜨르, 이자벨 코르나로 등 프랑스 작가 8인의 그룹전을 만나보자. 전시되는 조각, 사진, 설치, 영상 등 13점의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에 있어서 미술상의 역할과 의미를 기능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일시** 11월 29일까지 **장소** 송은 아트스페이스 **문의** 02-3448-0100 **관람료** 무료

황중례 <부드러운 힘>



1세대 여성 도예가 황중례의 지난 60여 년 활동을 조망하는 회고전으로 '부드러운 힘'이라는 주제의 대표작 1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귀얄'이라는 전통 장식 무늬를 현대적이고 회화적으로 확장시킨 황중례의 조형세계를 4개의 섹션으로 만날 수 있다. **일시** 2015년 2월 1일까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문의** 02-2188-6000 **관람료** 2천원

최홍선 展



올해 아트 햄프턴(뉴욕) 및 홍콩, 싱가포르의 아트페어에 연달아 참여하며 도자에 관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고 있는 최홍선 작가의 이번 개인전에서는 형태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벽면 작품과 관람자의 시점에 따라 입체나 평면, 또는 선처럼 느낄 수 있는 철재 작품을 발표한다. **일시** 11월 27일~12월 27일 **장소**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문의** 02-541-8484 **관람료** 무료

한상재 사진전 <오래 기다려온 사진>



25년간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친 후 명예퇴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한 작가의 카메라에 가장 먼저 담긴 피사체는 남편. 30년을 함께 살며 가장 가깝고도 가장 이질적인 존재이기도 한 피사체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만나보자. **일시** 11월 18~23일 **장소** 류가헌 **문의** 02-720-2010 **관람료** 무료

〈사랑에 빠진 여인들〉



제인 오스틴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문학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작품 중의 하나로, 〈채털리 부인의 연인〉으로 유명한 작가의 또 다른 대표작. 주인공으로 나오는 두 자매의 결혼에 관한 불편한 숙내를 통해 '말하려는 마음'과 '들으려는 마음' 사이에 머무는 인생의 진실을 작가 특유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전하고 있다.

지은이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 출판사 을유문화사

〈어느 독일인 이야기 - 회상 1914~1933〉



제바스티안 하프의 '최초의 책이자 최후의 책'으로 꼽히는 이 책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는 1914년부터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는 1933년까지의 기록을 통해 '난폭한 권력을 휘두르는 무자비한 국가'와 '작고 이름 없는 개인의 '결투'를 이야기하고 있다. 60년간 미공개로 남아 있던 책이 그가 세상을 떠나고 유족에 의해 비로소 공개되었다.

지은이 제바스티안 하프너 출판사 돌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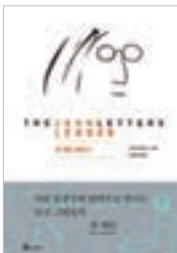
〈암스테르담 가라지세일 두번째〉



제3회 문지문학상 수상자인 김솔은 나이 마흔에 데뷔한 늦깎이 신인. 정교한 구성력과 동서고금의 고전들과 학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이질적인 기원을 가진 다종 다양한 문장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노련함을 보여주는 작가의 첫 소설집이 나왔다. 실험적인 구조를 통해 한국 소설의 새 지평을 열 작품으로 끝낸다.

지은이 김솔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존 레논 레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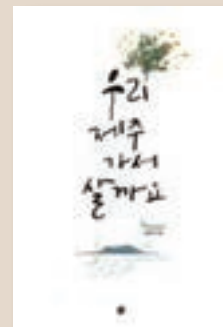


위대한 작곡가이자 시인이었던 존 레논이 남긴 편지들을 시인 김경주가 번역했다. 〈비틀스 전기〉를 집필했던 헨터 데이비스는 존이 친척, 친구, 애인 심지어 세탁소 앞으로 쓴 편지와 엽서 285통을 추적해 책으로 엮었다. 짙막한 소개글을 덧붙여 시간 순서로 엮은 편지 속에 존 레논의 삶과 고민, 두려움과 열정이 날것 그대로 담겼다.

지은이 헨터 데이비스 출판사 북폴리오

〈시작은, 페루〉
〈우리 제주 가서 살까요?〉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 때 읽는 여행서가 아니다. 다시 젊음을 느끼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발전소'다. 가장 핫하지만, 가장 젊기도 한 여행지를 담은 두 권의 책.



케이블 방송 〈꽃보다 청춘〉 페루 편과 라오스 편을 본 이들이라면 '무엇이 젊음인지' 그리고 '왜 여전히 청춘인지'를 공감했으리라 생각한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늘어서 있다면 결코 느낄 수 없는 충동은 기묘하게도 여행을 떠나면 맞닥뜨리곤 한다. 여행의 앞면이 휴식이라면, 뒷면은 일탈이다. 우리는 종종 그 뒷면을 통해 내 안에 남아 있는 젊음을 느끼고, 청춘의 푸른 얼굴을 되찾기도 한다. 소개하는 두 권의 책은 우리에게 대표 샐러리맨의 탈출기다. 분명 일상을 박차고 나갈 여장을 꾸리게 만드는 '발전소'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시작은, 페루〉는 글로벌 광고회사에서 굵직한 광고를 전담해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재호 씨가 첫 번째 책 〈멕시코 일요일 2시〉에 이어 6년 만에 선보이는 두 번째 여행기. 지난 6년간 카피라이터였던 그의 커리어는 부쩍 늘었지만, 그는 여전히 샐러리맨이다. 자신에게 주는 긴 휴가지로 그가 선택한 여행지는 대한민국 '꽃청춘'들이 선택한 페루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까지 이어진다. 저자는 이 여행을 통해 인생의 두려움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그 두려움과 맞서는 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 제주 가서 살까요?〉는 회사를 마친 금요일 밤이면 제주에 내려갔다가 일요일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를 몇 년째 반복 중인 샐러리맨 김현지 씨의 이중생활기다. 이를 통해 스스로에 대해 배워가는 저자는 여전히 청춘이다.

〈시작은, 페루〉 지은이 김재호 출판사 은행나무

〈우리 제주 가서 살까요?〉 지은이 김현지 출판사 달



유니버설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매년 겨울, 전 세계에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스테디셀러 공연,
유니버설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올해도 찾아온다.
클래식한 무용극으로 온 가족의 동심을 일깨워보자.

전 세계 발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 콤포지터 차이콥스키와 '마리우스 피티파'가 탄생시킨 <호두까기 인형>은 1892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120여 년간 크리스마스 발레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유니버설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1986년 국내 초연 후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올해 29년째를 맞는다. 이 작품은 이해하기 쉬운 마임과 스토리, 정통 클래식 발레의 이름 다음까지 볼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최고의 발레 입문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는 대부 드룽셀마이어의 마술로 살아 움직이는 세 인형들(할리퀸, 콜롬바인, 무어인)의 개성 있는 춤과 대부에게 선물받은 호두까기 인형을 두고 벌어지는 '클라라'와 '프리즈'의 쟁탈전,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 왕의 실감 나는 전투 장면은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유니버설 발레단에서는 마술사로 분장한 무용수가 실제 마술을 펼치며 깜짝 이벤트를 선사하여 더욱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여성 군무, '눈의 왈츠'는 1막의 마지막 장면에서 20명의 무용수들이 차이콥스키의 왈츠에 맞추어 시시각각 대열을 바꾸며 펼치는 역동적인 움직임은 수준 높은 클래식 명작임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의 유니버설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에서는 가족사진을 제시하는 3인 이상의 가족에게 티켓을 20% 할인받을 수 있는 '가족사진 패키지'와 60세 이상의 관객들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골든에

이지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인석 패키지'는 올해에도 계속된다. 둘만의 오붓한 분위기를 나눌 수 있는 전용 좌석과 특별 선물까지 증정된다.

따뜻한 무대 수준 높은 춤의 향연이 가득한 이 공연은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청장녀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선사한다. 국내외에서 모두 대표 송년 무용극으로 자리 잡은 유니버설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으로 연말을 훈훈하게 마무리해 보자. S

에디터 김희성 도움 주신 곳 유니버설 발레단(070-7124-1738)



한국의 미로 대륙을 물들인 설화수 중국 론칭 3주년 행사

지난 9월, 베이징에서 글로벌 설화수로서의 위상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2014년 현재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까지 전 세계 10여 개국에 진출한 설화수는 '아시아의 철학과 지혜를 담은 홀리스틱 뷰티 브랜드'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글로벌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지난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설화수의 중국 론칭 3주년을 기념한 프레스 행사가 그것. 설화수는 중국 론칭 이후, 아시아 전통 원료와 지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최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독보적인 뷰티 브랜드로 꼽히며 탄탄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프레스 행사는 설화수 브랜드 철학인 'Harmony & Balance'를 주제로 궁극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는 요소인 '조화와 균형'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의 더 큰 의미는 설화수의 중국 론칭 3주년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화수의 중국 내 성장을 가속화하는 의미를 담은 미래 지향적인 행사였다는 점. 이날 행사에서는, 설화수의 브랜드 철학을 비롯하여 설화수의 대표 제품들, 자음단과 인삼 등의 원료, 역사 등을 다양한 전시와 영상을 통해 경험하는 시간을 선사하여 설화수 브랜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현재 중국 주요 도시의 백화점 내 40여 개 매장을 오픈해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설화수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현지 고객

들을 만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중국 내 미디어와 유통 관계자, 오피니언 리더들은 물론 설화수를 사랑하는 중국의 셀러브리티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중국판 <아빠 어디가>에서 딸과 함께 인기를 얻고 있는 순리, 금마장상 수상에 빛나는 여배우 량징, 중국을 대표하는 여성 기업인 리이페이, 판빙빙의 옷을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귀페이 등도 행사에 참석해 설화수의 인기와 위상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S





page 06 | **Reading Korean Culture**

This issue introduces South Korea's warming culture that was effectively insulating and beautifully decorated. Among the winter wardrobes of our ancestors, we introduce Nambawi and Ayam. Nambawi was a type of hat that hid the ears and head and had fur around the rim for warming. Ayam was also a type of hat worn by women for decorative purposes.



page 18 | **Sulwha Cultural Exhibition**

<Sulwha Cultural Exhibition>, which selects a cultural topic every year to suggest a new perspective for the harmony of tradition and modernity, celebrates its 8th anniversary this year. This issue looks into the 2014 Sulwha Cultural Exhibition coming up soon.



page 24 | **Quality Life**

The Korean people have worshipped the purity of white since the old times. They have enjoyed white clothing and accessories, cherishing the meaning of white. The special theme of this issue, "Aesthetics of White," was chosen to highlight the sense of aesthetics behind the nationality of Korea.



page 48 | **The Four Seasons of Sulwhasoo**

<Sulwhasoo's Four Seasons> is a photographic collection that presents the silent yet powerful harmony of the beautiful natural scenery of Korea and Sulwhasoo's product packages. Revel in the beautiful white scenery that blooms in the magnificent terrains covered with snow.

page 58 | **Art Class**

This issue's <Art Class> introduces the new exhibition of Lee Bul, who has created a name for herself as a world-class contemporary artist through a number of exhibitions at the world's most famous art museums, including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and Pompidou Art Center. Her new exhibition is currently being held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outh Korea.



page 64 | **Connect**

This issue introduces Sir Kim Jong Heung and his son, who have succeeded in mastering the art of carving village guardians for generations. Sir Kim's son, Kim Joo Ho, has inherited the skill and is the guardian of Andong Hahoe Village.



page 70 | **Sulwhabogam**

<Sulwhabogam> presents Korea's natural food ingredients that can be eaten to maintain one's beauty inside and out. This issue introduces honey and soy, which can boost the healthy radiance and hydration of the skin.



page 80 | **Sulwhadogam(雪花圖鑑)**

<Sulwhadogam> features the lives and philosophies of the Korean ancestors reflected on the beautiful traditional paintings of Korea. The sixth topic is the Four Gracious Plants: plum blossoms, orchids, chrysanthemums, and bamboo. We have picked the relevant traditional writings and paintings.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 엽서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서 응모
- 응모 마감** 2014년 12월 15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
- 당첨자 발표** 다음 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 문화즐거이에서 소개하는 공연에 관한 관람권 증정 이벤트를 이번호에는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깊은 양해 바라며 앞으로 더 좋은 증정 이벤트로 찾아 뵙겠습니다.



설화수 윤조에센스(10명)

풍부한 촉촉함과 윤기를 더해 피부를 윤택하게 보필해 주어 세안 후 처음에 사용하는 부스팅 에센스입니다. 자음단이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바로잡아 속부터 촉촉한 윤기를 만들어줍니다.

문의 080-023-5454

9/10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윤조에센스(5명)

- 이소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 안권희** 경기 수원시 영통구
- 양희영** 부산 사하구 신평2동
- 김미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박병순** 경기 안양시 동안구

뮤지컬 <쓰릴 미> 관람권(6명)

- 김영미** 서울 노원구 공릉로
- 양민향**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 김은주** 서울 도봉구 창2동
- 추나래** 경기 하남시 춘궁동
- 정남필** 경기 군포시 오금동
- 박순희** 서울 강남구 개포1동

★ 9/10월호 당첨자 선물은 11월 30일까지 보내드립니다.